

숙명여대논술

인문계

목차

2026학년도 인문계열	3
1회차 · 문항 1	3
1회차 · 문항 2	7
2회차 · 문항 1	11
2회차 · 문항 2	16
 2025학년도 인문계열	 20
1회차 · 문항 1	20
1회차 · 문항 2	25
2회차 · 문항 1	29
2회차 · 문항 2	33
 2024학년도 인문계열	 38
1회차 · 문항 1	38
1회차 · 문항 2	43
2회차 · 문항 1	48
2회차 · 문항 2	52

2026학년도 인문계열

1회차 · 문항 1

[가]

보도 위에는 레오니아에서 나온 어제의 쓰레기들이 깨끗한 비닐봉지에 싸여 쓰레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눌러 찢아 치약, 터져 버린 전등, 신문, 그릇, 포장 재료 같은 것들만이 아니라 보일러, 백과사전, 피아노, 도자기 세트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레오니아의 풍요로움은 매일 생산되고 판매되고 구매되는 것보다 매일 새로운 것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 버려지는 물건들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곳 청소부들은 천사처럼 환영받습니다. 어제의 잔재를 치우는 그들의 임무는 신심에 영향을 주는 의식처럼 말 없는 존경을 받습니다.

레오니아 사람들은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어디로 가져가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청소부들은 그것을 도시 밖으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매년 도시가 확장되기 때문에 쓰레기장은 점점 더 멀리 물러나야 합니다. 버려지는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쓰레기 더미는 점점 더 높아지고 겹겹이 쌓이고 반경을 넓혀갑니다. 그 결과 과거의 파편들이 벗을 수 없는 갑옷처럼 단단하게 굳습니다. 도시는 매일 새로워지면서 하나의 결정체가 되어 자신을 보존하게 됩니다. 바로 그저께의, 그리고 매달, 매년, 십 년 전의 쓰레기들 위에 쌓이는 어제의 쓰레기 더미로 말입니다. 레오니아를 에워싼 튼튼한 쓰레기 성벽이 산처럼 사방에서 도시를 압도합니다.

레오니아의 국경선 너머에는 쓰레기를 끊임없이 밖으로 밀어내는 도시들이 분화구처럼 생긴 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분화구들이 세계 전체를 뒤덮고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서는 오염된 산들의 잔해가 서로를 지탱하거나 중첩되거나 뒤섞이면서 국경을 만들 겁니다. 쓰레기 산의 높이는 점점 더 높아지고 그럴수록 붕괴 위험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나]

한때는 쓰레기에 신경 쓰지 않고 산다는 것이 부유함을 뜻했다. 하인을 여럿 둘 수 있는 사람들은 육체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을뿐더러,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로 골치 아플 필요가 없었다. 비슷한 일이 1950년대 미국에서도 일어났다. 쓰레기 대부분을 도시 당국이나 민간 업체들이 직접 수거해서 도시 외곽으로 보내 매립장에 묻거나 소각로에서 태웠고, 음식 쓰레기는 분쇄기에 갈아 하수구로 내려보냈다. 쓰레기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저 멀리 사라져 폐기물 처리 전문가와 시스템만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냉전 시대에는 ‘버리는 행위가 해방을 뜻한다.’라는 말이 자본주의를 공산주의와 비교하는 용도로 쓰였다. 1954년 역사학자 존 쿨웨호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어느 정도의 낭비를 용인하는 것은 부유함의 전제 조건이다. 낭비는 부유함의 결과이자 민주주의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물건을 산다는 것은 자유를 뜻했고,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곧 어떤 상품을 구매하느냐의 문제였다. 사람들은 멈추지 않는 소비의 자유가 경제의 무한한 성장을 보증한다고 믿었다. 물건을 잠시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성마저도 생활의 편리함이자 자유의 즐거움이었다. 일회용품과 포장재, 그리고 이것들이 나타내는 편리함, 청결함, 노동 절감은 너저분한 옛날 방식과 대비되는 현대인의 자유로운 삶을 의미했다. 거침없이 물건을 소비하고 폐기하는 인간의 행위는 20세기의 고유한 현상이며, 재사용과 재활용이라는 옛날 습관은 사실상 사라져 버렸다.

벤스 패커드는 『쓰레기 제조자』에서 ‘계획적인 구식화(planned obsolescence)’라는 용어를 세상에 널리 알렸다. 그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품이 수명을 다하거나 기능이 저하되도록 만들고, 아니면 낡게 해서 촌스럽게 보이게끔 하는 소비자본주의의 전략을 말한다. 이런 전략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신상품을 끝없이 욕망하고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13년 포드사는 조립생산 라인의 노동 효율성을 높여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로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였다. 가격 경쟁에서 밀린 GM사는 1923년부터 매년 모델을 바꿔 출시하는 ‘연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4년 뒤 특정 모델의 신차 판매량에서 포드사를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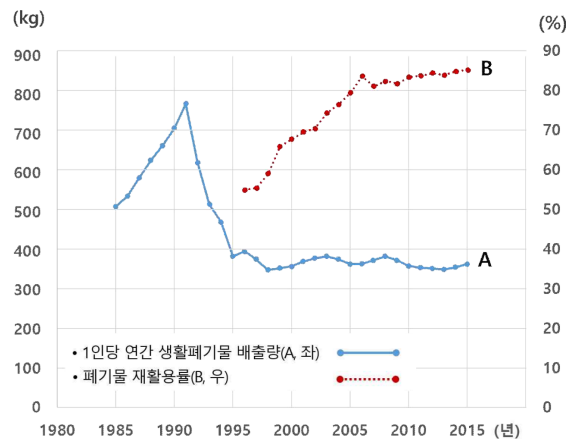
게 되었다. 1950년대에 이르러 미국인들은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집을 많이 소유하게 되었고, 그들의 가정은 수많은 상품으로 가득 채워졌다.

[다]

지난 근대 산업사회는 인간 역사상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다. 산업혁명 이후 본격화된 산업자본주의와 소비자본주의는 자연환경을 일방적으로 착취하여 생산력을 극대화했다. 특히 화석연료의 대규모 채굴과 사용을 통해 고도의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융합이 긴밀히 이루어졌다. 자본주의는 많은 사람을 극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준 성공적인 물질대사 시스템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성장 구조는 기후 급변과 생태계 파괴라는 최악의 이중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195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또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지구는 ‘사피엔스가 장악한 행성’, 즉 인류세의 행성이 되었다. 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나는 등 인간이 초래한 위기가 인간과 생태계를 다시 덮치는 악순환이야말로 인류세의 특징이다. 그렇기에 오늘날 생태계는 이러한 인간 사회계에 포위된 채 겨우 연명하거나 붕괴 직전에 놓여있다. 이제 문제는 ‘인간과 자연으로 이루어진 전체 생명공동체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이다.

자연 생태계는 자연순환과 먹이사슬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물질대사를 한다. 인간 사회계 역시 자연을 상대로 물질대사를 한다. 그런데 자연 생태계와 달리, 인간 사회계는 자연으로부터 물질과 에너지를 ‘추출’하고 그것을 ‘변환’하여 ‘소비’한 후 폐기물을 일방적으로 ‘배출’한다. 이러한 물질대사에서 순환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인간 사회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최악의 위기에 대응해야만 한다. 이때 비로소 사회계와 생태계는 상호 순환하며 함께 진화하는 관계가 된다. 즉, 생태계는 사회화된 자연 생태 시스템이 되고, 사회계는 생태계에 의존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사회-생태계’라고 부른다.

인류세는 재난을 양산한다.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생태계의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회-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하려면 ‘회복력(resilience)’이 강화되어야 한다. 회복력이란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시스템을 재조직하면서도 시스템 자체의 고유 기능, 구조, 정체성, 피드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그러므로 자연 재난과 극한 기상이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순환적인 사회경제를 향한 거시적 차원의 여러 정책만이 아니라 녹색소비를 위한 노력에서처럼 미시적 차원의 개인의 책임 의식과 참여가 필요하다.



<그림 1> 쓰레기종량제* 시행 전후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폐기물 재활용률의 변화 추이

* 1990년대 들어 시행된 쓰레기종량제는 오염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주요 내용으로, 생활폐기물은 자치단체가 판매한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품(종이, 고철, 병, 플라스틱 등)은 일시와 장소에 따라 배출하면 무료 수거되며, 폐가구, 폐가전제품 등은 구매한 스티커로 수수료를 부담하여 배출하게 했다.

1-1. <가>에 나타난 레오니아 사람들의 쓰레기에 대한 태도와 도시의 문제 상황을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설명하십시오. (300±30자)

1-2. <다>의 논지에 따라 <나>에 나타난 문제를 비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 1>을 해석하십시오. (600±60자)

■ 예시 답안

1-1.

레오니아 사람들은 매일 버려진 물건이 신상품으로 대체될 때 풍요해진다고 여기며 계속 쓰레기를 버린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무관심하다. 레오니아의 국경으로 계속 밀려난 쓰레기는 붕괴할 만큼 높은 쓰레기 산이 되어 도시를 위태롭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끝없이 상품 소비를 부추기는 소비자본주의가 쓰레기 배출마저도 권장하는 데서 비롯된다. 쓰레기에 대한 책임마저도 배출자로부터 면제하고 처리 전문가와 시스템에 전가하는 것이다. 소비자본주의는 ‘계획적 구식화’ 전략의 경우처럼 과도한 상품 생산과 그에 비례한 폐기물 증가를 낳아 결국 환경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328자)

1-2.

근대 이후 산업 및 소비자본주의가 자연을 착취함으로써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와 생태계의 위기를 불러일으켰으며, 이것은 생물다양성 파괴와 새로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낳았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의 일방적인 경제 성장 구조를 바탕으로 한 인간 사회계가 자연에서 물질과 에너지를 추출, 변환, 소비, 배출하는 매우 제한적으로 순환하는 물질대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와 생태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사회계와 자연 생태계가 상호 순환하고 공진화하는 사회-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회-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여러 정책의 실행과 함께 미시적 차원의 개인적인 책임 의식과 참여가 필요하다. 사회-생태계는 무한한 상품 소비가 경제 성장을 보증한다는 믿음을 조장한 소비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쓰레기의 무한한 발생과 배출을 긍정하면서 초래할 위기에 대한 비판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림 1]에서 그래프 A는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됨으로써 개인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급감했음을 보여주고, 그래프 B는 이러한 개인적 실천이 순환 경제를 위한 자원 재활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은 사회-생태계의 관점에서 기후와 생태계의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만이 아니라 개인의 의식과 실천이라는 미시적 차원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653자)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논리적 구성)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정서법)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시문 <가>에서 레오니아 사람들의 쓰레기에 대한 태도와 도시의 문제 상황 기술】 ① 레오니아 사람들은 매일 버려진 물건이 새로운 상품을 대체함으로써 풍요해진다고 여긴다. ② 레오니아 사람들은 계속 쓰레기를 버리지만,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무관심하다. ③ 도시 밖으로 계속 밀려난 쓰레기는 점점 높은 쓰레기 산이 되어 언제 붕괴할지 모른 채 레오니아를 위협에 빠뜨린다. 【제시문 <나>의 내용을 활용한 설명】 ④ <나>는 소비자본주의가 상품 소비를 부추기는 것만이 아니라 쓰레기 배출 행위도 권장하고 있음을 설명해준다. 이는 쓰레기에 대한 책임에서 배출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것을 처리 전문가와 시스템에 전가하고 있음을 통해 강조된다. ⑤ <나>는 ‘계획적 구식화’의 전략에서처럼 소비자본주의가 상품의 끝없는 소비 욕망을 자극하고 결국 과도한 상품 소비와 증가한 폐기물이 도시 환경을 파괴하리라 예상한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⑤를 충족하고, ④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⑤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 ⑤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 ⑤가 부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에 3개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논리적 구성)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정서법)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시문 <다>의 논지 기술】 ① <다>는 근대 이후 산업 및 소비자본주의가 자연환경을 착취함으로써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와 생태계에 위기를 불러일으켰으며, 생물다양성 파괴와 새로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②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자본주의의 일방적인 경제 성장 구조를 바탕으로 한 인간 사회계가 자연 생태계와 달리 자연에서 물질과 에너지를 추출, 변환, 소비, 배출하는 매우 제한적으로 순환하는 물질대사를 하기 때문이다. ③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사회계와 자연 생태계가 상호 순환하고 함께 진화하는 사회-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여러 정책만이 아니라 미시적 차원의 개인적인 의식과 참여가 필요하다. 【제시문 <나>의 문제 기술】 ④ <나>의 내용에 제시된 문제는 무한한 상품 소비가 경제 성장을 보증한다는 믿음을 조장한 소비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쓰레기의 무한 발생과 배출을 긍정하면서 마침내 환경이 파괴된 미래 사회의 위기를 예상케 한다는 점이다. 【[그림 1]의 해석】 ⑤ 그래프 A는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됨으로써 개인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급감하였으며, 그래프 B는 이러한 실천이 순환 경제를 위한 폐기물 재활용률의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은 사회-생태계의 관점에서 기후 급변과 생태계 파괴의 문제에 대응하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만이 아니라 개인의 의식과 실천이라는 미시적 차원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⑤를 충족하고, ④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⑤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 ⑤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 ⑤가 부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에 3개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1회차 · 문항 2

[가]

왕세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인 ‘행복의 섬’에 도착하자마자 솔로코프는 영화관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 놓인 안락한 소파에 앉았다. 자리에 앉자 곧 영화가 시작되었다. 다름 아닌 솔로코프 자신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였다. 그의 개인 소장품과 여러 매체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영상을 인공지능이 모아 편집한 영화였다. 솔로코프는 짜깁기한 단조로운 영화에 싫증을 느끼고 반쯤 눈을 감았다. 그러는 동안 표정, 체온, 심박수, 혈압, 생체 신호, 그리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호르몬 수치 등 모든 생체 지표가 그가 앉은 평범해 보이는 가족 소파를 통해 철저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영화가 끝나자 화면에 여러 질문이 나타났다. 시종드는 로봇 카린이 그에게 읽으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가?” 솔로코프는 기분이 상해서 카린을 바라봤다. “무슨 이따위 바보 같은 질문이 다 있어? 내가 이걸 대답해야 해?”

“솔로코프 씨, 행복이 매우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당신의 기본적인 상태를 더 잘 이해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총 5단계로 된 척도를 사용해 최대한 솔직하게 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코프는 로봇을 향해 “바보 같은.”이라며 투덜렸으나 이내 다시 화면을 보며 응답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질문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얼마 남지 않은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모양이었다. 그가 포기하려 하기 직전에 질문이 끝나고 머리 위 조명이 켜지면서 카린이 말했다.

“축하합니다, 솔로코프 씨. 이제 함께 지내실 손님들을 만나러 갑니다. 솔로코프 씨도 좋아하실 겁니다.”
...(중략)...

화려하게 차려 입은 아킬라 공주가 은수저로 와인잔을 두드려 손님들을 주목하게 했다. 우선 자신의 오빠인 왕세자가 연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사과했다. 왕세자는 이 행복의 섬을 통제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설계한 책임자이기도 했다. 공주가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왕세자께서는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어떤 기술도 좋은 게 아니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왕세자는 기술의 힘을 통해 인간이 행복에 이르는 궁극의 길을 찾고자 이 섬을 설계했습니다. 이 섬에 오신 여러분은 왕실이 이룩한 이 전례 없는 과업을 목격하는 특전을 누리게 될 겁니다.” 공주의 또렷한 영어 악센트는 아주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다소 차갑게 느껴졌다. 솔로코프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공주님, 저는 왕세자의 비전과 결단력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만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신경생리학자가 입을 열었다. 그는 목청을 가다듬고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도파민이 뇌의 보상체계를 통제한다는 것, 또 옥시토신이 정서적 교감을 강화하고 엔도르핀이 통증을 완화해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바는 불안안을 잠재우고 세로토닌은 자신감을 북돋우고 아드레날린은 활력을 채워주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감과 직접 관련된 어떠한 신경전달물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인이 와인잔을 높이 들며 끼어들었다. “에밀리 디킨슨이 ‘저 작은 돌맹이는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썼고 레이먼드 카버는 ‘행복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바라보는 저마다의 방식이 있는 게 아닐까요?”

“제 생각에 사람들은 모두 더 행복하게 살고자 노력하는데, 다만 기술과 실천력에서 차이가 있을 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피곤해 보이는 여배우가 물담배 연기를 한껏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뿔으며 말했다.

아킬라 공주가 모두의 의견에 인내심 있게 고개를 끄덕인 후 말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에 대해 각기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모두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

1990년대부터 행복이라는 주제와 그 분야 연구에 관심을 둔 심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의 협력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만 해도 행복은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고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여겨져 그

연구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연구자는 별로 없었다. 그래서 행복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노라 주장하는 연구는 실증주의 학계에서 큰 의심을 사곤 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복이 상대적이라면 객관적인 경제 개선과 부양이 반드시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행복이 상대적이라면 감정과 기분에 대한 객관적인 과학이 가능한지조차 의심스러워진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혹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이 행복처럼 까다로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마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서툰 것처럼 행복을 가늠하고 평가하는 데 서툰 것은 아닐까?

그리하여 1990년대 내내 많은 경제학자와 심리학자가 서로 손을 잡고 설문 조사, 가치 척도 등 주관적 안녕감,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객관적으로 측정한다고 알려진 방법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였다. ‘옥스퍼드 행복 척도’나 ‘삶의 만족도 척도’ 같은 것들이 그 예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총생산(GNP)’과 비슷하게 국민 행복에 관한 통계 데이터를 모아 ‘국민총행복(GNH)’을 지표화하였으며, ‘경제웰빙 지수’나 ‘인간 개발 지수’ 등을 공공정책의 효과와 경제 발전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행복의 다양한 수준들은 ‘고통의 양에 대한 쾌락의 양’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인간에게 행복은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것, 나아가 정확하게 측정되고 실증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행복은 완전히 상대적일 수는 없다. 도리어 행복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 된다.

[다]

오늘날 우리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가능성과 관련하여 엄청난 낙관론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낙관론 덕에 마음과 몸, 뇌에 대한 세심한 과학적 관찰만으로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행동주의와 공리주의의 야망이 재점화되었다. 행동주의 경제학자나 행복 전도사들이 드디어 인간의 동기 부여와 만족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할 때마다 새로운 심리 감시가 암시되는 셈이다.

돌이켜 보면 1960년대 처음으로 사회 전체의 행복에 관한 데이터들을 수집하려던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에 대해 보고할 때, 그 보고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를 의심해야 했다. 하지만 오늘날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감시와 자기 감시, 그리고 데이터 분석학은 이 문제를 일소할 수 있다고 약속한다. 사람들의 말을 본인들은 모르게 한꺼번에 해석할 수 있다면, 혹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신의 행복 상태를 실시간 수치로 표현해 알려줄 수 있다면, 연구자들은 굳이 설문 조사를 통해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 보고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빅 데이터는 인간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과 행동을 자발적으로 보고하게 하며, 사람의 신체, 얼굴, 행동을 추적하여 기분을 읽어내는 감성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사람의 감정을 판별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의 능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 행복의 조건과 본질에 관한 과학적 탐구로 시작했던 작업이 한순간에 행동 통제를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 인간의 번영과 진보를 이해하기 위해 시작한 작업이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경영자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나아가 제시된 정책을 아무런 비판 없이 무작정 따르게 만드는 수단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과 육체, 그리고 세상 사이의 관계를 정량화하는 작업은 사람들에게 대한 통제력을 확고히 하고 그들의 결정을 예측하는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

2-1. <나>의 내용에 근거하여 <가>의 왕세자와 시인의 관점 차이를 설명하시오. (300±30자)

2-2. <나>와 <다>를 활용하여 <가>의 ‘행복의 섬’ 프로젝트의 이점과 한계를 논하시오. (600±60자)

■ 예시 답안

2-1.

<나>에는 행복을 바라보는 두 관점이 나온다. 하나는 행복이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어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절한 방법이 동원된다면 행복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의 ‘행복의 섬’에서는 생체 신호의 기록,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의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시인은 그러한 시도에 대해 회의적이다. 행복을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시인이 <나>에서 나온 행복에 관한 상대주의적 입장이라면, 왕세자는 행복도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드러난다. (313자)

2-2.

인간은 언제나 행복하기를 꿈꾼다. ‘행복의 섬’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의 힘을 빌려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하려는 시도이자 노력이다. 만약 <나>에 나온 것처럼 행복이 그저 상대적인 감정이고 그래서 측정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면, 심리학이나 경제학 연구를 통해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하려는 다양한 노력은 그 의미와 객관적인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행복의 섬’에서는 첨단 기술을 통해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려고 시도한다. 그런 점에서 ‘행복의 섬’ 프로젝트는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하려는 다양한 노력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인간의 행복을 증진할 기술을 더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가 오늘날 빅 데이터나 SNS와 같은 첨단 기술과 만날 때, 사회를 감시 사회로 만들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다>에서 볼 수 있듯이 행복에 관한 자기 보고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을 감시하고 조작하는 통제 기술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행복의 섬’ 프로젝트는 인간을 이해하고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인간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606자)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논리적 구성)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정서법)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에 나오는 행복을 바라보는 두 입장의 요약과 구별】 ① <나>는 행복을 바라보는 두 입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 입장에 따르면, 행복은 상대적이고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이어서 행복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② 반면 다른 입장에서는 적절한 방법만 동원된다면 행복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고 본다. 【<가>에서 왕세자와 시인의 입장 구별】 ③ <가>의 왕세자는 행복의 섬에 초대된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다시 말해 왕세자는 <나>에서 말하는 행복이 측정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반면 시인은 디킨슨과 카버의 말을 인용해 행복이 상대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대화의 자연스러운 맥락에 비추어 보면 <나>에서 말하는 행복이 상대적이며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유사하다. 【왕세자와 시인의 입장 차이를 가져오는 핵심 근거】 ⑤ <나>에서 행복이 측정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의 근거는 적절한 측정 방식의 유무다. 이는 왕세자와 시인이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설명한다. 시인이 행복을 그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감정으로 보는 반면, 왕세자는 생체신호와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행복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과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였으나 ⑤의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였으나 ⑤가 부족하고 논리적 구성과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은 충족하였으나 ④, ⑤가 부족한 경우	5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②, ④를 충족하였으나 ③, ⑤가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가 부족한 경우 (<나>의 내용 파악을 잘못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논리적 구성)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정서법)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의 ‘행복의 섬’ 프로젝트의 의미 설명】 ① <가>의 ‘행복의 섬’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인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다. 【<나>를 활용한 행복의 섬 프로젝트의 이점 설명】 ② <나>에서 볼 수 있듯이 행복을 그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감정으로만 이해한다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경제학이나 심리학의 다양한 시도들은 객관적인 근거를 잃게 된다. ③ 행복의 섬 프로젝트는 기술 개발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실제로 생체 신호 측정,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로젝트는 인간 삶의 객관적인 조건들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시도의 실증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고, 그에 의지해 인간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인간의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게 한다. 【<다>를 활용한 행복의 섬 프로젝트의 한계 설명】 ④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오늘날의 첨단 기술은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 행복에 관한 자기 보고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게 해 줄 수단으로서 빅 데이터나 SNS 같은 새로운 기술은 그러나 개인의 의지와 무관한 새로운 감시 사회를 초래할 수 있다. ⑤ 본래 행복의 섬 프로젝트는 기술 발전을 통해 인간이 더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이용된다면, 프로젝트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위험한 전략으로 탈바꿈될 수도 있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과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은 충족하였으나 ④, ⑤(프로젝트의 한계)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④, ⑤를 충족하였으나 ②, ③(프로젝트의 이점)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③, ⑤를 충족하였으나 ②, ④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④를 충족하였으나 ③, ⑤가 부족한 경우	6등급
	②, ③, ④, ⑤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①이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의 내용이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2회차 · 문항 1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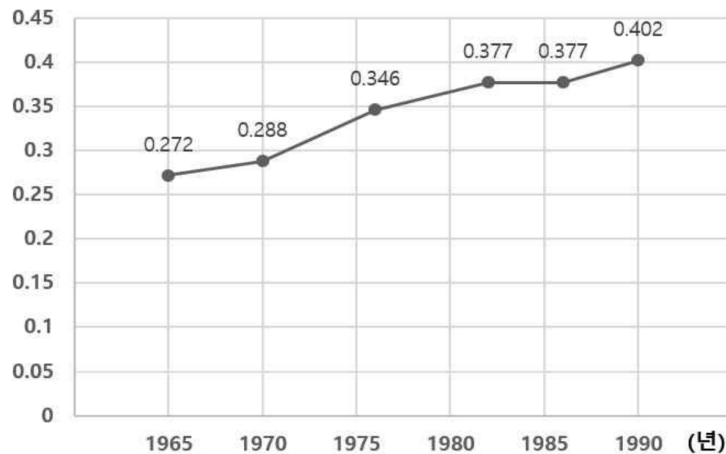
장병만 씨의 고향은 전라북도 완주군의 어느 작은 마을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중학교를 마친 뒤부터 줄곧 농사를 지어온 농투성이였다. 1,200평 정도의 논과 400평 정도의 밭농사였는데, 그나마 자기 땅이 아니라 소작농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농사일이 너무나 힘들고 뼈빠지게 일해봐야 빚밖에 남지 않는 희망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1964년 그의 나이 서른한 살 때 식솔을 이끌고 무작정 상경을 감행했노라고 했다.

“이불 보파리 하나만 달랑 들고 야간열차를 타고 오면서도 그때 참 청운의 꿈이 있었지요, 서울에 오면 뭔가 새 인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서울에서 그는 다른 이농민들이 그렇듯 도시 빈민층에 편입되었다. 판잣집이라도 얻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집주인 행세를 하였지만, 그는 셋방살이로 서울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무수히 많은 직업들을 전전했다. 막노동은 물론이고 전철이나 버스칸에서 때 빼는 약이니 지갑이니 하는 것을 파는 세일즈 일도 해보았고, 떠돌이 약장사를 따라다니기도 했으며, 잘만 하면 목돈을 만진다는 소문에 복덕방 거간꾼으로 뛰여보기도 했다. 자기가 들어가 살 수도 없으면서 마치 자신의 집을 매매하듯이 열정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곤 했던 것이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그는 서울에 올라오면서 품었던, 언젠가는 자신의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리라는 꿈, 이를테면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생을 벗어나고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살 수 있는 가슴 벅찬 그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번번이 그 새로운 인생은 오지 않았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늘 제 자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마는 것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꿈이었어요.” 후배가 그에게 말했다. “이미 엄청나게 확대되고 단단해진 이 자본주의 체제가 그런 영성하기 짝이 없는 장 선생님의 꿈을 허락해줄 리가 없는 거지요.” 무심코 내뱉은 후배의 말에, 판자촌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다는 결정에 따라 그곳마저 빈손으로 쫓겨날 상황에 처한 장병만 씨는 두 눈으로 분노를 쏟아낼 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림 1> 한국의 소득 지니계수* 추이



<표 1> 1985년도 연령대/학력별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 (단위: 원)

학력 연령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하	대졸 이상	전체
전체	147,571	194,525	245,028	317,214	200,274
20대	137,073	181,272	198,858	265,357	182,193
30대	141,786	192,460	248,718	310,692	201,997
40대	146,862	205,867	288,927	335,550	205,946
50대	165,713	255,101	323,960	418,467	233,320

* 소득 지니계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계수로, 0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평등해지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해짐.

[나]

고층 건물은 도시 공간에서 부자들이 빈자를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많은 고층 건물은 그 자체로 젠트리파이어(gentrifier), 즉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한국의 대도시에서 오래된 주택가가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일은 우리가 흔히 보아 온 일이며, 그 연장선에서 고층 건물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계급 전쟁의 무기로 기능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 무기가 정당화되는 방식이다. 젠트리피케이션 연구로 잘 알려진 지리학자 닐 스미스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을 독특하게 규정했던 프런티어(frontier)의 개발이 서부에서 동부 도시로 이동해 온 과정을 다음과 같이 추적한다. “서부의 평원과 산맥, 숲에 적용되던 황야와 프런티어의 이미지는 이런 장소들이 멀끔하게 문명화되고 난 20세기 후반기에는 미국 동부 도시에 더 많이 적용되었다. 2차 세계 대전 후 교외화 경험의 일부로서 미국 도심들은 ‘도시의 황야’로 인식되었다. 즉 과거 미국 도심들은, 그리고 많은 경우 지금도 질병과 무질서, 범죄와 부패, 마약과 위협의 온상이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서부의 ‘원시적이고 위험하며 야만적인’ 황야가 그랬듯이 ‘도시의 황야’ 역시 발전과 확장의 긍정적인 기대가 얹힌 프런티어로 대체되어야 했다. 스미스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표현에는 프런티어 이미지에 대한 호소”가 담겨 있으며, “프런티어 담론은 18, 19세기 서부에서든, 20세기 말 도심 지역에서든 정복 과정을 합리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스미스의 말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이 프런티어의 이미지에 호소하고 프런티어가 “야만과 문명의 접점”으로 불릴 때, 고층 건물이라는 젠트리파이어는 ‘야만’을 몰아내고 ‘문명’을 도심에 끌고 오는 것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빈자를 몰아내고 부자를 데려온다. 황폐=쇠퇴=위험=야만=정체=빈자로 가득 찬 도시는 풍요=활력=기회=문명=발전=부자로 재편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층 건물이 상징하는 미래적 이미지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즉 고층 건물은 그 자체로 미래로 향하는 발전의 이미지를 도시에 이식함으로써 자신의 승리를 정당화한다. 고층 건물은 이렇게 빈자를 내쫓는 무기이면서 동시에 부자들이 도피하는 곳이다. 도시의 공중은 사유화되었다. 그들은 높이 올라갈수록 ‘밑바닥’ 삶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발밑 도시를 심미적인 배경으로 소비할 수 있다.

[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오늘날 세계적인 도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 이 대규모 도시계획을 주도한 인물이 로버트 모세스이다. 그는 20세기 뉴욕 도시계획의 중심인물로,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마스터 빌더(Master Builder)’로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했다. 모세스의 계획은 뉴욕을 자본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중심의 현대 도시로 재편하는 것이었다. 브루클린-배터리 터널은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며 교통 흐름을 개선했다. 트라이버러 다리는 맨해튼, 브롱크스, 퀸스를 이어주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모세스는 말하자면 전형적인 근대주의적 도시개발사업자지만 이러한 빛나는 성과 뒤에는 심각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모세스의 재개발은 수천 가구의 강제 이주를 초래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수민족 공동체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크로스 브롱크스 고속도로 건설로 약 5,000가구가 철거됐고, 주로 흑인과 히스패닉 가정이 거주하던 지역이 파괴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이나 대체 주거지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러한 강제 이주는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뉴욕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모세스의 뉴욕 재개발은 1960년대 제인 제이콥스와의 대립으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제이콥스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닌 지역 주민이자 작가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모세스의 도시계획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대표적인 예로 그녀는 도시녹화사업을 설명한다. 공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공원을 만드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이콥스는 공원이 풍요롭기 위해서는 시간대나 요일에 따라 다른 타입의 사람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그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평일 아침저녁으로는 회사원이 왕래하고 점심시간에는 런치박스를 들고 벤치를 찾는다. 그 외의 시간에는 작은 아이를 데리고 주부가 찾아오거나 학교가 끝날 시간에는 아이들의 함성이 들려온다. 밤에는 변화가에 나온 사람들이 모여들거나, 휴일에는 버스킹 연주와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은 일상적으로 공원을 가로지르고 마주치는 사람들과 가벼운 대

화를 나눈다. 이러한 다양성은, 공원이 주거시설과 오피스, 상가 등 동선의 일부 속에 위치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또한 사람들의 활기도 중요하다. 평일 점심때만 사람들로 북적이는 오피스가의 공원은 저녁 시간 이후에는 한산해져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즉 도심부에 녹지를 늘린다는 배려만이 아니라 근처에 다양한 사람들의 활동이나 생활이 존재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공원을 만들기는 어렵다. 제이콥스는 불도저로 슬럼을 일소하여 넓은 도로와 고층단지 사이에 조성한 공원은 그것이 아무리 넓고 좋은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금세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시설물이 될 뿐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제이콥스는 모제스 방식의 대규모 도시 재개발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도시의 인간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제이콥스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 소규모 상업, 주민 간의 상호작용이 도시의 활력을 만든다고 믿었다.

1-1. <가>의 ‘장병만 씨의 꿈’에 대해 <그림 1>과 <표 1>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30자)

1-2. <다>의 논지에서 <가>와 <나>에 보이는 ‘도시 재개발’에 대해 평가하시오. (600±60자)

■ 예시 답안

1-1.

<가>에서 장병만 씨의 사례는 1960년대 도시화 과정의 전형적인 것으로 중졸 학력의 그는 도시 빈민층에 편입되었다가 재개발 과정에서 그곳에서마저 쫓겨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의 꿈은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 상승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림 1]에서는 1965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1]에서는 장병만 씨가 속한 50대의 학력별 임금격차가 중졸이하에 비해 대졸이상이 2.5 배 이상을 보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볼 때 장병만 씨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318자)

1-2.

<다>에서 제인 제이콥스는 로버트 모제스식의 근대적 도시계획이 대규모 재개발과 강제 이주를 초래하며 지역 공동체의 다양성과 생명력을 파괴한다고 비판하며,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며 일상적 관계를 이어가는 도시의 인간적 가치를 중시한다.

<가>에서 장병만 씨의 묘사는 이촌향도와 도시화 과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저학력 저소득층의 도시 생활자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집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절한 보상 없이 축출되는 계층 불평등의 심화 과정을 보여준다. <나>의 고층건물은 젠트리피케이션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부자들은 도심의 상층부로 올라가며 ‘밀바닥 삶’을 심미적 배경으로 소비하고, 빈자들은 점점 도시에서 밀려난다. 고층건물이라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상징에 대해, ‘야만을 몰아내는 문명화’라는 프런티어 담론을 결부시키는 것은 “불도저식 개발”을 정당화하는 논리일 뿐이다.

따라서 제이콥스의 논지에서 보면 <가>와 <나>의 도시 재개발은 자본주의적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논리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계층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도시의 진정한 발전은 외형적 고도화나 자본의 집중이 아니라, 도시의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여 도시를 ‘살아 있는 유기체’로 만드는 데에 있다. (607자)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논리적 구성)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정서법)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의 ‘장병만 씨의 꿈’ 설명】 ① 장병만 씨는 빈농 출신으로 1960년대 30대의 나이에 이촌향도하여 도시 빈민층에 편입된 인물. 장병만 씨는 저학력에 사회의 저변 직업을 전전하지만 희망찬 미래를 그리면서 열심히 일하면 계층의 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함. ② 소설의 배경으로, <가>에서는 196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심과 주변 사이에 계층적 구별이 ‘도시 빈민층에 편입’이라는 말로 설명되고 있으며, 또한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라는 사회적 약자가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상황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제하는 자본주의적 개발논리를 설명하고 있음. 【[그림 1]의 설명】 ③ [그림 1]은 1965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의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지니계수를 통해 밝히고 있다. 1965년 0.272에서 1990년 0.402로 상승하여 25년 사이에 0.130만큼 큰 폭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줌. 【[표 1]의 설명】 ④ [표 1]은 1985년도 연령대별, 학력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에 따른 비교로 볼 때, 전체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의 월평균소득은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50대 연령에 대비해 보면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의 월평균소득 차이는 2.5 배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음. 【[그림 1]과 [표 1]을 장병만 씨의 사례에 적용】 ⑤ [그림 1]과 [표 1]은 장병만 씨에게 적용되는 정보들이다. [그림 1]로 볼 때, 장병만 씨가 상경한 이후 한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악화되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표 1]로 볼 때, 1985년에는 장병만 씨가 50대에 속하며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의 소득 격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크게 차이가 벌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적용할 때 개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인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을 이루려는 장병만 씨의 꿈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며,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두 개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두 개가 부족하며,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세 개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논리적 구성)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정서법)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의 논지】 ① 로버트 모제스식의 도시계획 및 도시 재개발은 자본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는 그 부작용으로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② 제인 제이콥스는 인간적 관계와 생활의 다양성이 살아 있는 도시를 이상으로 제시하며, 대규모 재개발로 인한 공동체의 해체를 비판한다. 제이콥스는 공원의 예를 통해 도시의 생명력은 다양한 계층과 활동이 공존하는 일상적 교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가>에서 묘사하는 도시 재개발】 ③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촌향도와 빈부 계층 차이를 보여주며 또한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라는 사회적 약자가 희생을 강제당하는 묘사를 통해 계층 차이가 고착화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의 확장에 의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가 기술하는 도시 재개발】 ④ <나>에서는 고층 건물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상징으로서, ‘야만을 몰아내는 문명화’라는 프런티어 담론을 통해 부자들의 지배를 정당화한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도시 재개발은 외형적 발전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부자와 빈자의 공간적 구별을 고착시키고 부자의 승리를 합리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의 논지에서 <가>와 <나>의 도시 재개발 평가】 ⑤ <다>의 논지에서 보면 <가>와 <나>의 도시개발은 자본주의적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논리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발전은 외형적 고도화나 자본의 집중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며 일상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살아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에 있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⑤를 충족하였으나, ①, ②, ③, ④ 중 하나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⑤를 충족하였으나, ①, ②, ③, ④ 중 하나가 부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두 개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두 개가 부족하며,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세 개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2회차 · 문항 2

[가]

우언(寓言)은 짧고 날카로워 문학 속의 기마병이다. 동물이나 허구의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 인간의 삶을 빗대어 간결하게 표현한다. 중국의 문인 유종원이 남긴 우언은 비록 양은 많지 않으나 전형적인 형상을 이루었다. 그의 작품들은 시대의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서 사회 현상과 인간의 속성을 신랄하게 묘사했다. 그의 대표작인 <부판전>에서 풍자하는 인간 속성의 두 가지 측면을 보자.

부판(蝨蟥)이라는 놈은 짐을 잘 지는 작은 벌레이다. 길을 가다가 무슨 물건이라도 맞닥뜨리면 주워서 머리로 들어 올려 등에 진다. 물건이 무거워 지극히 힘들어도 스스로 그만두지 못한다. 그 등은 걸 끄러워 물건들이 쌓이면 흠어지지 않아, 끝내 얹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 모습을 가련하게 여겨 그 짐을 치워 주어서 걸을 수 있게 되어도, 또다시 가져다가 전과 마찬가지로 들어 올려 등에 짊어진다. 게다가 그 놈은 높은 곳에 기어오르기를 좋아하여 힘이 다 빠질 때까지도 멈출 줄을 몰라 결국에는 땅에 떨어져 죽고 만다. 비록 덩치가 커다란 사람이라는 존재들도 이 작은 벌레의 지혜와 같다.

[나]

“내가?” 나는 웃었다.

“예, 형님하고 형님 동기 중에서 조(趙)형 하고요.”

“조라니, 나하고 친하게 지내던 애 말인가?”

“예, 그 형이 재작년엔가 고등고시에 패스해서 지금 여기 세무서장으로 있거든요.”

“아, 그래?”

“모르셨어요?”

“서로 소식이 별로 없었지. 그 애가 옛날엔 여기 세무서에서 직원으로 있었지, 아마?”

“예”

“그거 잘됐군. 오늘 저녁엔 그 친구에게나 가볼까?”

친구 조는 키가 작았고 살결이 검은 편이었다. 그래서 키가 크고 살결이 창백한 나에게 열등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내게 곧잘 했었다.

‘옛날에 손금이 나쁘다고 판단 받은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자기의 손톱으로 손바닥에 좋은 손금을 파가며 열심히 일했다. 드디어 그 소년은 성공해서 잘살았다.’

조는 이런 얘기에 가장 감격하는 친구였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술 한 잔씩을 마시고 나서 세무서장이 된 조의 집을 향하여 갔다. 거리는 어두컴컴했다. 다리를 건널 때 나는 냇가의 나무들이 어슴푸레하게 물속에 비춰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게 여전하군.” 내가 말했다.

“그렇까요?” 후배가 웅얼거리듯이 말했다.

조의 응접실에는 손님들이 네 사람 있었다. 나의 손을 아프도록 쥐고 흔들고 있는 조의 얼굴이 옛날보다 윤택해지고 살결도 많이 하얘진 것을 나는 보고 있었다.

“어서 자리로 앉아라. 이거 원 누추해서…. 빨리 마누랄 얻어야겠는데…”

그러나 방은 결코 누추하지 않았다.

...(중략)...

집에는 세무서장인 조가 보낸 쪽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 일 없으면 세무서로 좀 들려주게.’ 아침밥을 먹고 나는 세무서로 갔다. 이슬비는 그쳤으나 하늘은 흐렸다. 나는 조의 의도를 알 것 같았다. 서장실에 앉아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다. 아니 내가 비꼬아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고쳐 생각하기로 했다.

조는 러닝샤쓰 바람으로, 바지는 무릎 위까지 걷어붙이고 부채를 부치고 있었다. 나는 그가 초라해 보였고 그러나 그가 흰 카바를 씌운 회전의자 위에 앉아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몸짓을 해 보일 때는 그가 가엾게 생각되었다.

“바쁘지 않나?” 내가 물었다.

“나야 뭐 하는 일이 있어야지. 높은 자리라는 건 책임진다는 말만 중얼거리고 있으면 되는 모양이지.”

그러나 그는 결코 한가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서류에 조의 도장을 받아갔고 더 많은 서류들이 그의 미결함에 쌓여졌다.

“월말에다가 토요일이 되어서 좀 바쁘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그 바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다]

김 군은 나의 벗이다. 그가 시냇가의 푸른 소나무 숲속 산기슭 한 곳을 구해 조그만 정자를 지었다. 각 모서리에 기둥을 세워 가운데는 비워두고 폴로 지붕을 얹고 대나무를 엮어 벽을 만드니, 멀리서 보면 깃으로 지붕을 꾸민 그림배 같았다. 이 정자를 휴식할 곳으로 삼고서 선생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그대는 장주(莊周)의 우언(寓言)을 들어보았는가. 장주가 ‘옛날에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햇빛 아래에서 도망쳤는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더니만 나무 그늘에 들어가자 그림자가 돌연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대개 그림자라는 것은 한결같이 사람의 형체를 따르는 것이니,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 그림자도 고개를 숙이고, 사람이 고개를 치켜들면 그림자도 고개를 치켜들며, 그 밖의 오고가는 행동을 오로지 형체가 하는 대로 따른다. 그러나 그늘 아래와 밤에는 없어지고 불빛 아래와 낮에는 살아나니, 사람의 처신도 이와 유사하다. 사람이 태어날 때 조물주에게서 형체를 받으니, 조물주가 사람에게 장난치는 것이 어찌 형체가 그림자를 부리는 것 정도에 그치겠는가.

그림자가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것은 형체의 처분에 달렸고, 사람이 천변만화하는 것도 조물주의 처분에 달렸다. 사람된 자는 당연히 조물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니 내가 무슨 간여할 것이 있겠는가. 아침에 부유했다가 저녁에 가난해지고, 예전에 귀한 사람이었다가 지금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모두 조물주가 풀무질 하면서 만들어지는 일이다. 나의 한 몸으로 본다면, 예전에 높은 관을 쓰고 조정을 출입했다가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숲과 골짜기를 거닐고, 조정의 어진 신하와 단절하고 고라니며 사슴과 짝이 되었다. 이 모두가 그 사이에서 무언가가 장난을 쳐서 그렇게 되는데도 내 스스로 알지 못하니, 이에 대해 무슨 기뻐하고 성낼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김 군이 말하기를,

“그림자는 진실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선생의 경우는 인생의 실의와 득의가 자신에게 달렸으니 세상에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밝은 시대를 만났으면서도 재능을 숨기고 자취를 감추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선생이 대답하기를,

“흐름을 타면 가고 구덩이를 만나면 그치는데, 가고 그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산림에 들어온 것은 하늘의 뜻이니, 비단 그림자를 실 뿐만이 아니라 서늘한 바람을 타고 조물주와 벗이 되어 까마득히 먼 들판에 노닐고 그늘 속으로 사라지면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을 터이니, 식영(息影, 그림자를 씌)으로 이름하면 안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김 군이 말하기를,

“이제야 선생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적어 주시면 정자의 이름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였다.

2-1. <가>에 나타난 부판의 ‘지혜’를 요약하고 <나>의 한 인물에 적용하시오. (300±30자)

2-2. <나>와 <다>에 삽입된 우언에서 보이는 운명에 대한 관점을 ‘조’와 ‘선생’의 삶의 태도와 연관지어 기술하고, 각 인물의 시각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논하시오. (600±60자)

■ 예시 답안

2-1.

부판의 지혜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자신의 등에 올리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것’과 ‘높은 곳에 오르길 좋아하다가 결국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하여 인간의 끝없는 소유욕과 출세욕을 풍자하고 있다. 이 두 속성은 <나>에 나온 ‘조’의 삶에 적용된다. 조는 세무서 직원에서 시작하여 세무서장이 된 인물인데, 현재 부를 축적했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부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세무서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쉴 새 없이 일하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성향을 보이는데 이는 부판이 지닌 두 속성과 유사한 것이라 하겠다. (323자)

2-2.

<나>의 우연은 손금이 나뻐던 친구가 손톱으로 좋은 손금을 그려 성공한다는 것이고, <다>의 우연은 그림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림자를 피해 다니다가 결국 그늘에서 그림자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의 우연은 손금을 인위적으로 그림으로써 성공한다는 내용을 통해 운명은 개척 가능한 것이란 관점을 보여주고, <다>의 우연은 그림자는 그늘 아래에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임을 말함으로써 인간은 운명에 순응할 때 삶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란 관점을 보여준다.

조의 삶의 태도는 <나>에 나타난 우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즉,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것이라 믿고 꾸준히 노력한 끝에 부와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 선생의 삶의 태도는 <다>의 우화와 닮아있다. 선생은 운명을 피해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늘 속에서 쉬라는 우화의 가르침을 실천한다. 그가 산림에 들어가 머무는 행위는 운명을 긍정하며 그늘로 들어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둘은 서로의 시각에서 논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는 조의 시각에서는 운명에 쉽게 순응하는 선생의 방식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삶으로 비칠 수 있으며, 운명의 큰 흐름을 보고 있는 선생의 시각에서는 조의 성공이 일시적인 것일 뿐 언제라도 급변하는 운명의 흐름을 탈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645자)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논리적 구성)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정서법)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판의 지혜(반어적, 어리석은 행동)와 인간의 욕망을 연계지어 파악할 수 있어야 함】 ① 길 가다가 보이는 모든 것을 등에 짐 → 소유에 대한 욕망 ② 높은 곳에 오르기를 좋아함 → 출세에 대한 욕망 【인물에 대한 적용】 ③ ‘조’에 적용할 것. ④ 부판의 소유에 대한 욕망을 ‘조의 부에 대한 욕망’에 연관시킴. ⑤ 부판의 출세에 대한 욕망을 ‘조의 출세에 대한 욕망’에 연관시킴.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였으나 ④, ⑤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였으나 ④, ⑤가 부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④, ⑤를 충족하고 ③이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④, ⑤를 충족하고 ③이 부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3개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논리적 구성)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정서법)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연에 나타난 운명에 대한 관점의 파악】 ① <나> 우연의 핵심 : 나쁜 손금을 좋게 파면서 노력하여 성공하였듯이, 운명은 개척할 수 있다. ② <다> 우연의 핵심 : 그림자가 늘 따라붙듯이 운명은 피할 수 없고, 그늘 속에 들어가면 사라지듯이 순응함으로써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조와 선생의 삶의 태도】 ③ ‘조’의 삶의 태도 : 나쁜 손금을 좋은 손금으로 파면서 성공한 우화처럼, 열심히 노력하여 세무서 직원에서 세무서장으로 출세할 수 있었고 검은 얼굴도 윤택하게 바뀔 수 있었다. ④ ‘선생’의 삶의 태도 : 그림자를 피하고 싶은 사람이 그늘로 들어와서 그림자를 쉬게 할 수 있었듯이, 선생도 운명의 흐름을 타고 속세를 벗어나 지금 산림에 들어와 있다. 【서로의 태도에 대한 논함】 ⑤ ‘조’의 시각에서 ‘선생’을 볼 때 : 인생은 노력하면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선생처럼 사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라 논할 수 있다. ⑥ ‘선생’의 시각에서 ‘조’를 볼 때 : 지금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그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운명의 한 때가 그렇기 때문인 것이며, 운명의 또 다른 흐름이 오면 그대도 운명의 급변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라고 논할 수 있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 ⑥을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⑤, ⑥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⑤, ⑥ 중 하나를 충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중 2개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중 2개가 부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중 3개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중 4개 이상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2025학년도 인문계열

1회차 · 문항 1

[가]

요즘에는 뉴스 기사를 열 때마다 도표와 마주친다. 그런데 수치를 이미지로 표현한다는 개념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크림전쟁 당시 나이팅게일이 많은 수를 한눈에 설명할 수 있는 도표를 이용한 덕분에 사람들은 군대 의료가 처한 암울한 상황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19세기 초반 더욱 많은 수의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수집된 수를 분석할 필요 또한 커졌다. 도표와 함께 ‘평균’도 흔히 사용되었다. 나이팅게일은 두툼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방법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는데, 이를테면 전쟁 기간 중 매달 평균 환자수를 계산했다.

평균은 16세기 말부터 천문학자들이 사용해 오고 있었다. 천문학자들은 개별 천체 측정값에는 예외 없이 어느 정도의 오류가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들은 측정한 값의 총합을 측정한 개수로 나눈 평균 측정값을 일단의 개별 측정값 전체에 걸쳐 축적된 전체 오류값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했다. 예를 들어, 한 과학자가 켄 토성의 속도 측정값은 오류를 가지나 여러 과학자들이 켄 토성 속도 측정값이나 한 명의 과학자가 켄 여러 가지 측정값과 같이 축적된 전체 오류값은 평균 측정값을 통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균 측정값이 측정값의 참값(예를 들어, 토성의 진짜 속도)에 대한 기대 가능한 최대 근접치라는 것은 후에 수학자 가우스의 유명한 증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9세기에 케틀레는 평균을 천체가 아닌 인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다. 케틀레는 왜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의문을 던졌고, 인간의 행동에는 특정 패턴이 존재해야 한다는 답안을 찾는 과정에서 **평균인(l’homme moyen)**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평균인이 참 인간이며 개개인인 오류에 해당한다. 즉 그는 평균적 인간이 인간의 보편적 원형이며, 우리 모두가 이러한 원형의 결함 있는 모사작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케틀레는 평균인의 개념을 키와 몸무게와 같은 계측 가능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특성들, 예컨대 어느 개인이 환자가 되거나 범죄를 저지를 확률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케틀레에게 평균인은 완벽 그 자체이자 자연이 꿈꾸는 이상이며 오류 없는 인간의 표상이었다. 케틀레는 평균적 인간을 우러러 받든 반면, 평균에서 벗어난 불운한 개인들에 대해서는 그에 맞먹는 혐오감을 가졌다.

[나]

영국 과학자 골턴과 관련한 일화가 있다. 1907년 어느 봄날 골턴은 항구도시 플리머스로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에서 커다란 황소를 무대 위에 올려놓고 도축했을 때 손질된 고기의 무게를 맞추는 대회를 목격하였다. 소에 관한 천차만별의 지식을 가진 참가자들은 6펜스를 내고 산 티켓에 이름과 주소, 숫자(무게)를 적어 냈고, 그중 가장 근접한 수치를 적어 낸 사람이 상금을 탈 수 있었다. 골턴은 소 무게 맞추기 게임에 참가한 집단의 지혜를 확인하고 싶어 그 티켓 787개를 손에 넣어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 무게를 너무 크거나 작게 추정했다고 단정했고, 중앙값인 547kg을 민주적 결정의 결과값으로 선택했다. 실제 손질된 고기의 무게는 543kg으로 밝혀졌다. 놀랍게도 골턴이 제시한 대중의 선택은 정답에 매우 가까웠다. 골턴은 이 경험을 “인민의 목소리(Vox Populi)”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출판하였는데, 오늘날 그의 발견은 **대중의 지혜(wisdom of crowds)**로 알려져 있다.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이항 또는 연속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평균(average)’이라는 통계량(statistics)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집단의 대푯값으로 사용된다. 평균은 일상에서 평균 임금, 평균 시험 점수, 평균 온도 등과 같이 자주 쓰이지만, 그 의미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명확하지 않다. 평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구체적으로 데이터의 총합을 데이터 개수로 나눈 값인 산술평균(mean), 수들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중앙값(median), 가장 흔한 값인 최빈값(mode) 등이 있다. 그리고 이 값들은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위치 설정의 기준, 즉 중심 경향값(central tendency)으로도 알려져 있다.

불행히도 평균이라는 말이 미디어에서 등장할 때, 이것을 산술평균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앙값으로 해석해야 하는지가 종종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영국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평균 임금은 산술평균인데 반해 지방정부는 평균 임금을 중앙값으로 따로 보고하는데, 여기서 ‘평균 소득’, 즉 산술평균과 ‘평균적인 사람의 소득’, 즉 중앙값을 구별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또 영국 정부는 주택 공시 가격을 중앙값으로 보고하는데, 그것을 일컫는 말이 ‘평균 주택 가격’이라서 혼란이 발생한다. ‘평균-주택 가격인가 아니면 평균 주택-가격인가?’ ‘-’ 부호의 위치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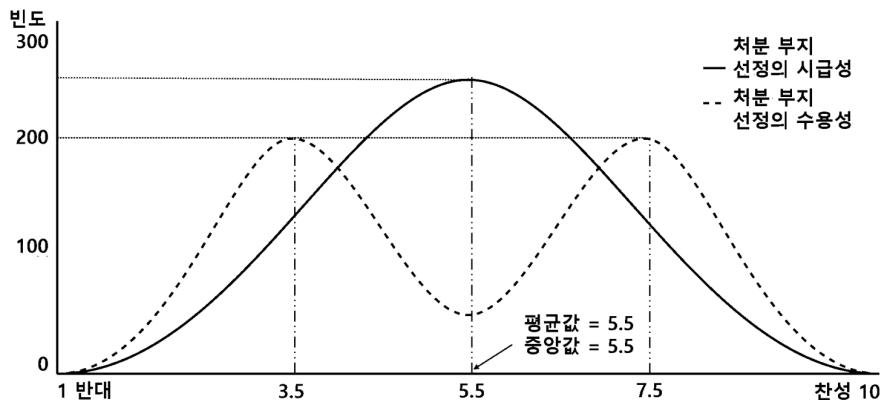
[다]

북아메리카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의 신장을 측정한 데이터를 살펴보자. 전형적인 북아메리카 여성의 키(중앙값, 즉 50%의 여성보다 크고 나머지 50%의 여성보다 작은 여성의 키)는 약 165cm이다. 평균적인 북아메리카 여성의 키(평균값, 즉 모든 여성들의 키를 더해 총 여성 수로 나눈 값)도 약 165cm이다. 이 데이터에서 중앙값과 평균값은 같으며, 여성의 키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종 모양의 대칭적인 형태로 고르게 퍼져 데이터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이른바 ‘정규’ 분포로 나타난다.

그런데 중앙값과 평균값이 늘 동일한 것은 아니며, 데이터의 분포 상태에 따라 동일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인구의 소득별 비율을 요약해 보여 주는 소득 분포 그래프는 종 모양의 대칭적 형태보다는 오른쪽 ‘꼬리’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모양을 ‘두꺼운 꼬리(fat-tailed)’ 분포라고 한다. 두꺼운 꼬리 분포는 극단적인 쏠림을 특징으로 하며, 세계 평균 소득은 중간 소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식당 고객의 시간별 방문 수를 보여 주는 그래프는 특정 시간대를 중심으로 두 개의 뚜렷한 봉우리(peak), 즉 두 개의 최빈값을 가지는 ‘이봉(bi-modal)’ 분포로 나타난다.

다음 가상의 사례를 살펴보자. 가상의 A국가 시민들은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 선정이 긴급하다는 ‘시급성’과 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본인 거주 지역에 처분 부지를 선정하는 결정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에 대해서 대체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식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A국가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한 4,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두 개 사안 각각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는가’를 질문하였고, 설문 참여자에게 10점(1=“절대 반대”, 10=“절대 찬성”)의 범위 내에서 무제한의 소수점 단위까지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질문에 대한 응답 모두에서 평균값과 중앙값은 5.5점으로 동일했다. 상세한 응답의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정책 결정자들은 사회에서 평균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시민의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 한 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응답을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참고하기로 했다. 한편,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은 처분 부지 선정의 시급성과 수용성을 묻는 질문 각각에 5.5점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1] 시민 의견 설문 조사 결과

1-1. <가>의 ‘평균인’과 <나>의 ‘대중의 지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300±30자)

1-2. A국가 정부가 시민 ㉠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나>, <다>, [그림 1]을 활용하여 비판하시오. (600±60자)

■ 예시 답안

1-1.

<가>와 <나> 모두 참값을 알아맞출 수 있는 방법으로 평균의 활용을 이야기한다. <가>의 ‘평균인’은 산술 평균을 통해 도출된 평균 측정값에 해당하는 인간이며, 총오류를 최소화한 근접치로 오류 없는 인간의 표상이다. <나>의 ‘대중의 지혜’는 중앙값을 통해 도출된 사람들의 평균적인 의견이며, 중앙에 위치한 의견이 참값과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결정임을 보여 준다. 이들은 참값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다수의 데이터를 요약한 수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평균인은 산술평균 그리고 대중의 지혜는 중앙값으로 그 수치를 산출하는 방식에서는 차이점을 가진다. (316자)

1-2.

A국 정부는 평균적인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며, 시민 ㉠을 평균적인 시민으로 보는 것은 평균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문제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평균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보여 주고 싶은 현상에 따라 산술평균과 중앙값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두 개의 정책사안, 즉 ‘시급성’과 ‘수용성’에 대한 시민 전체의 평균적인 의견에 대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다>는 특히 데이터 분포 형태에 따라 평균값과 중앙값의 일치 여부가 달라지며, 이는 대푯값으로서의 평균이 때로는 중심적인 경향을 보여 주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시민 ㉠의 응답은 두 개 사안 모두에 대해서 시민 전체 의견의 평균값과 중앙값과 일치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려는 정부의 결정은 오차를 최소화하는 타당한 결정이면서 민주적인 결정일 수 있다. 하지만, 시급성에 대해서 시민 ㉠은 산술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의 모든 평균을 기준으로 시민 전체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지만, 수용성에 대해서는 최빈값에서 시민 전체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수용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이봉으로 분포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민 ㉠을 이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인 평균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24자)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값의 근접치로서의 평균의 기능과 활용에 대한 설명】 ① 참값을 직접 측정하기 어려울 경우 근접값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 근접값이 임의의 개별적인 관찰값이 아니라 다수의 관찰값을 요약한 특정값으로서의 평균값이다. 【제시문 <가>의 참값의 근접치로서의 ‘산술평균’의 기능과 활용에 대한 설명】 ② 평균인은 참값으로부터의 총오차를 최소화하는, 즉 측정값의 총합을 측정한 개수로 나눈 값인 산술평균 방식의 평균 측정값을 가진 사람이다. ③ 참값에 대한 기대 가능한 근접치로서 평균인은 오차가 없는 이상적인 존재로 여겨지며, 평균인의 개념은 오차에 대해 부정적이다. 【제시문 <나>의 참값의 근접치로서의 ‘중앙값’의 기능과 활용에 대한 설명】 ④ 대중의 지혜는 참값으로부터 오차가 큰 관찰값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차를 최소화한 가운데 중앙값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⑤ 숫자를 크기에 따라 정렬하여 산출하는 중앙값은 관찰값이 차지한 상대적 위치를 중심으로 산출되며, 참값과의 오차를 최소화한 근접치로서의 성격보다는 참값을 보다 쉽게 찾도록 도와주는 기능성을 가진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하고, ⑤가 부족하지만 논리성이 충분한 경우	2등급
	①, ②, ④ 중 한 개가 부족하고, ③, ⑤가 부족하지만 논리성이 충분한 경우	3등급
	①, ②, ④ 중 한 개가 부족하고, ③, ⑤가 부족하면서 논리성이 미흡한 경우	4등급
	①, ②, ④ 중 두 개가 부족하고, ③, ⑤가 부족하지만 논리성이 충분한 경우	5등급
	①, ②, ④ 중 두 개가 부족하고, ③, ⑤가 부족하면서 논리성이 미흡한 경우	6등급
	①을 충족하고 ②, ③, ④, ⑤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개인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의 의의와 문제점 설명】 ①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에 ‘사회에서 평균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시민’의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한 결정을 <나>의 ‘대중의 지혜’에서의 의사결정과 연계하고, 여기서 ‘평균’이 가지는 다의미성을 ‘산술평균’과 ‘중앙값’으로 구분한다. - 단,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와 같은 표본추출의 방법이나 설문 조사의 타당성 등의 연구방법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논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질문한 내용이 아니므로 감점한다. ② 정책에 대한 시민 전체의 관점과 평균적인 시민의 관점에 차이(오차 또는 오류 등)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히고, 관련 사안에 대한 시민 의견의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하여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평균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제시문 <다>의 본문과 [그림 1]의 내용에 대한 분석】 ③ 평균적인 시민의 관점과 시민 ㉠의 관점의 일치 여부는 데이터 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림 1]은 시민 ㉠의 응답이 ‘시급성’에 대해서는 시민 다수의 의견과 산술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기준에서 동일하지만, ‘수용성’에 대해서는 시민 소수의 의견에 해당함을 설명한다. ④ 더 나아가 [그림 1]은 평균적인 시민이 ‘시급성’에 대해서는 한 개의 평균을 중심으로, 즉 중립적인 의견으로 집중되어 있고 ‘수용성’에 대해서는 두 개의 평균을 중심으로, 즉 2개의 대비되는 의견을 가진 하위 집단으로 분리될 수 있고 각 집단은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데이터 분포를 활용해 시민 ㉠의 의견 활용의 타당성을 평가】 ⑤ 시민 ㉠은 사안에 대해서 사회의 평균적인 경험을 대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산술평균이나 중앙값에 해당하는 시민 ㉠의 의견을 시민 전체의 의견에 대한 최대 근접치로 사용하는 것은 ‘시급성’에 대해서는 타당하나, ‘수용성’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더 좋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대푯값(즉 평균)과의 일치 여부가 아닌 데이터의 분포 또는 퍼짐의 정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는 답안도 가능하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②, ③, ④ 중 두 개가 부족하고, ⑤가 부족하지만 논리성이 충분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중 두 개가 부족하고, ⑤가 부족하면서 논리성이 미흡한 경우	6등급
	①, ②를 충족하고 ③, ④, ⑤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1회차 · 문항 2

[가]

‘명품’하면 무엇이 떠오르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70%는 고급스런 이미지를, 19%는 브랜드의 전통을 떠올린다. 무조건 값비싼 제품이라고 해서 명품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명품을 고급스럽고 비싼 제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모건스탠리 추산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1인당 명품 소비액은 325달러로 미국의 280달러를 넘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올해 한국인 전체의 명품 소비액은 전년보다 24% 늘어난 16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치 문화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명품 매장은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이고 특급 호텔은 SNS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해 ‘호캉스’를 하는 투숙객으로 붐빈다. 몇 년씩 적금을 부어 고급 브랜드 시계나 보석을 사는 행태는 이미 일반화됐다. 명품을 소비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한 소비는 더욱 부추겨진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무슨 문제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사치와 허영이 개인을 넘어 한 사회의 문화가 된 것은 경계해야 할 현상이다. 최근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22%만이 ‘명품을 과시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이 명품을 통한 과시를 긍정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부의 과시가 용인되는 것은 ‘돈 많은 게 최고’라는 가치관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재력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는 사회에서 명품 소비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 된다. 이에 대해 외신은 “한국이 글로벌 명품 시장에서 ‘별’처럼 빛난다.”면서, “한국에서는 명품 아이템이 곧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 같다.”라고 꼬집고 있다.

한국 상황이 심각한 것은 단순히 부자들만이 아니라 서민들까지 명품 구매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욕망의 충족이라는 점에 있어 평등해진 사회임을 의미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사회임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그나마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명품을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가 명품을 과시한다면 결국 남들과의 차이는 다시 소멸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세상의 가치가 돈으로 귀결되는 사회에서 삶은 명품 소비와 함께 역설적이게도 더욱 궁핍해진다.

[나]

보통 사람들은 욕망을 어떤 대상에 대한 어느 한 주체의 관계로 기술한다. 그리고 욕망의 근원을 욕망 주체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결코 자연 발생적이지 않다. 욕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한 대상을 욕망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나의 내부에서 생겨난 감정이 아니라 나의 외부에서 그 누군가로부터 빌려온 감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라르는 욕망을 ‘매개자’라고 하는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상과의 관계로 정의한다. 이러한 관계는 욕망의 모방적 속성을 나타내는데, 돈키호테가 광기 어린 행동을 하는 것은 그가 전설의 기사인 아마디스를 은연중에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닮고자 하는 욕망,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싶은 욕망, 다시 말해 모방 욕망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지라르는 모방 욕망의 기본적 속성이 형이상학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이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델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것이 그것이다. 욕망의 이러한 속성은 흔히 실제적인 사용 가치가 없는 대상을 욕망하는 현상, 게다가 없는 가치를 부여하면서까지 그 대상을 욕망하는 현상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 명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것이 꼭 필요하다기 보다는 그 소유를 통해 존재의 가치가 상승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특히 모방 욕망의 형이상학적 속성에서 주체와 매개자 사이의 거리는 욕망의 강도를 결정짓는 요소이면서, 이 욕망이 개인들 사이의 갈등과 폭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주체가 모델을 자신과는 다른 우월자로 공공연히 인정하고 애초부터 경쟁자로 생각지 않을 경우, 주체의 욕망은 강렬하지 않을뿐더러 사회적 갈등도 격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체가 매개자와의 차이를 부정하고 스스로 그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모델은 같은 대상을 욕망하는 경쟁자가 되며 이 경쟁은 집단 전체를 위협하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모델에 대한 적대감이 확인되는 순간 주체의 욕망은 배가되지만, 그 주체 역시

모델의 적대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욕망하는 개인 간의 관계가 평등한 집단일수록 왜 갈등과 폭력이 커지는지에 대한 이유가 된다.

[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다. 욕망하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연을 정복하고 문명을 이루면서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욕망은 욕구와 구분된다. 욕구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생물학적이고 본능적 필요에 대한 바람이며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라면, 욕망은 타자와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과 평가를 받는 것이 욕망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타 셰프가 운영하는 미술랭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 할 때 그 스테이크 자체를 좋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이 미술랭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는다는 것을 남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욕망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타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욕망을 마음껏 표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억압하거나 변형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욕망은 항상 제한되고 억압된다. 억압된 욕망은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과 내면의 모습을 다르게 만든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남을 많이 의식한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나의 직업이나 외양이 어떻게 판단될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을 그렇게 의식하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데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정말 외부의 다른 사람일까? 라캉에 따르면, 타자란 물리적으로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타자란 나와는 다른 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자기 안에서 자기로 환원시킬 수 없는 ‘낯선 것’을 말한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것이며, 나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타자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욕망의 중심에는 항상 나르시시즘이 놓인다. 라캉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실은 우리 자신의 자아”라고 말하듯이, 이 나르시시즘 때문에 욕망은 자기실현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한 사람의 욕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지난 과거를 살펴보아야 한다. 어려서 물질적 궁핍함 속에서 자란 사람이 유독 과시 소비에 몰입한다거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이 더욱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내면의 타자가 클수록 욕망은 강렬해진다. 그리고 그 욕망이 강렬해질수록 자아는 소외된다. 욕망이 자기 존재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끊임없이 과시 소비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아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2-1. <가>에서 서술된 ‘명품’ 소비 현상을 <나>의 관점에서 해석하시오. (300±30자)

2-2. <나>와 <다>가 각각 말하는 ‘욕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600±60자)

■ 예시 답안

2-1.

한국의 명품 소비는 SNS를 통해 확산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소비는 더욱 부추겨진다. 이것은 우리의 욕망은 내면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빌려온 모방 욕망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때 명품 소비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는 것은 곧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이유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욕망의 형이상학적 속성을 통해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서민까지 명품 소비에 합세함으로써 삶이 더욱 궁핍해진다는 것은 욕망하는 주체와 모델 간의 차이가 소멸될 때 경쟁은 격화되고 사회적 갈등은 심화된다는 주장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324자)

2-2.

제시문 <나>와 <다>는 공통적으로 욕망이란 주체의 내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이때 타인이 누구인가인데, 제시문 <나>는 타인이란 주체 밖의 다른 주체라고 말하는 반면, <다>는 내 안에 자기로 환원되지 않는 낯선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욕망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그 욕망의 근원은 다르게 이해된다. 즉 <나>에 있어 욕망의 기원은 주체 밖에 놓이는 반면, <다>는 주체와 내 안의 무의식적 자아 간의 간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차이는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이유 또한 다르게 만든다. <나>에서 그 이유는 욕망하는 주체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방하려는 모델의 존재 가치로 상승시키려는 데 있다면, <다>에서는 욕망이란 자기애적 나르시시즘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욕망하는 주체의 자기 발견에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욕망의 강도 또한 다르게 이해된다. <나>에서는 주체와 타인, 즉 모델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나의 욕망은 그 강도가 약해지고 사회적 갈등은 적어지는 반면, <다>의 욕망은 내 안의 타자와 욕망하는 주체 간의 간격이 커질수록 강해지며, 주체의 소외는 심해지게 된다. (612자)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시문 <가>가 서술하는 명품 소비 현상을 제시문 <나>에 근거해서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① 명품 소비의 현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따라 하게 된다는 것은 욕망의 모방적 성격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② 부자들만이 아니라 서민들까지 소비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은 모방 욕망의 형이상학적 속성, 즉 주체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욕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③ 우리 사회가 누구든 돈만 있으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한 사회라는 것은 욕망하는 주체와 모델 사이의 거리가 소멸된 사회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④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서로 과시 소비를 통해 보여 주려고 하는 만큼 삶은 더욱 궁핍해질 것이라는 점은 모델과 주체 간의 차이가 소멸된 사회에서는 갈등이 더욱 격화된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하고 논리적 연결이 분명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연결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중 한 개가 부족하지만 논리적 연결이 분명한 경우	3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②, ③, ④ 중 한 개가 부족하면서 논리적 연결이 불분명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중 두 개가 부족하지만 논리적 연결이 분명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중 두 개가 부족하면서 논리적 연결이 불분명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중 한 개만 충족하는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시문 <나>와 <다>가 말하는 욕망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야 한다.】 [공통점] ① 욕망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성립한다. [차이점] ② 욕망의 근원은 제시문 <나>에 있어서는 타인이지만 제시문 <다>에서는 욕망하는 주체 자신의 내면이다. ③ 제시문 <나>에서는 욕망하는 이유가 뛰어난 모델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데 있다면, 제시문 <다>에서는 내면의 자기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자아를 실현하려는 데 있다. ④ 제시문 <나>에서는 욕망하는 주체와 모델(타인) 간의 차이가 소멸될수록 욕망의 강도는 강해지고 사회는 경쟁적으로 되는 반면, 제시문 <다>에서는 욕망하는 자아와 자신 안의 무의식적 자아(타인) 간의 간격이 커질수록 욕망은 강렬해지고 자기 소외는 심해진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했으나 연결이 논리적이지 못한 경우	2등급
	①은 충족하였으나 ②, ③, ④ 중 한 개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은 충족하고 ②, ③, ④ 중 한 개가 부족하며, 연결이 논리적이지 못한 경우	4등급
	①은 충족하였으나 ②, ③, ④ 중 두 개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②, ③, ④ 중 한 개가 부족한 경우	6등급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②, ③, ④ 중 한 개가 부족하면서, 논리적 연결이 불충분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2회차 · 문항 1

[가]

“만약 이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결국 세상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체스 게임이겠죠. 와,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제가 그 말들 중 하나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이 될 수만 있다면 졸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여왕이 되는 것이 더 좋기는 하지만요.”

이 말을 하고 엘리스는 조금 부끄러워져서 진짜 여왕을 살짝 쳐다보았다. 그러나 여왕은 유쾌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쉽지. 네가 좋다면 하얀 여왕의 졸이 될 수가 있단다. 하얀 여왕의 아기 고양이는 시합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거든. 둘째 칸에서부터 시작하렴. 여덟째 칸에 도착하면 너도 여왕이 될 수가 있단다.”

바로 그 순간, 웬일인지 그들은 달리기 시작했다.

나중에 몇 번이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달리기 시작했는지 엘리스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단지 기억나는 것은 그들이 손을 잡고 달리고 있었고, 여왕이 너무나 빨라서 간신히 속도를 맞추기에 바빴다는 것뿐이었다. 그런데도 여왕은 계속해서 “더 빨리! 더 빨리!”라고 소리쳤다. 엘리스는 더 빨리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말할 틈조차 없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들 주변에 있는 나무며 다른 것들의 위치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어느 것 하나 뒤로 젖히고 앞으로 달려 나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중략)...

이제 그들은 너무나 빨리 달려서 마침내 땅에 발을 대지 않고 공중에 살짝 떠서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엘리스가 완전히 지친 순간, 갑자기 그들은 멈추었다. 엘리스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차고 눈앞이 어지러웠다.

여왕은 엘리스를 나무에 기대어 서게 하고 친절하게 말했다.

“이제 조금 쉬도록 하렴.”

엘리스는 깜짝 놀라 당혹해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머나, 우리가 계속 이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건가요? 모든 것이 아까와 똑같은 자리예요!”

“당연하고 말고, 어쩔 거라고 생각했지?”

여왕이 물었다.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한참 동안 빨리 달리면 어딘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아직은 조금 숨을 헐떡이며 엘리스가 말했다.

“느림보 나라 같으니! 자, 여기에서는 보다시피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면 계속 달릴 수밖에 없단다. 어딘가 다른 곳에 가고 싶다면, 최소한 두 배는 더 빨리 뛰어야만 해!”

여왕이 말했다.

- 루이스 캐럴, 《거울 나라의 엘리스》

[나]

현대인들은 자신에게서 시간이 빠져나가고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느낌을 점점 더 강하게 받는다. 시간은 마치 석유처럼 소비되는, 그래서 점점 더 희소하고 비싸지는 원자재처럼 인식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비하면 역설이다. 이러한 시간 부족의 느낌은 최근 수십 년간 강해졌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 우리는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멀티태스킹처럼 주어진 시간 동안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려는 사회적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자유로운 시간은 증가해야 한다.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데 시간이 덜 들게 되므로 시간은 풍부해져야 한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시간이 점점 빠듯해지고 있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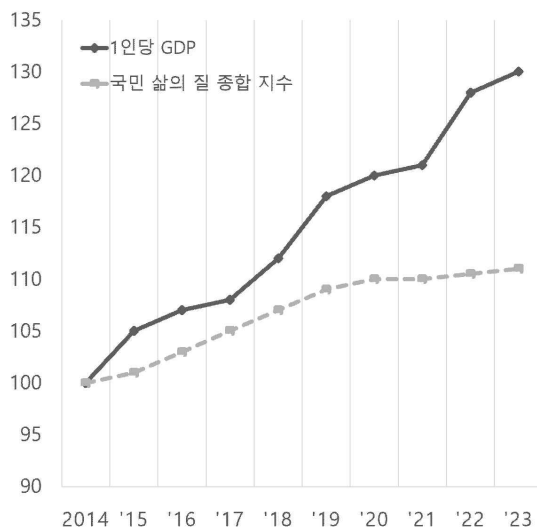
이메일을 한 통 쓰는 것이 종이 편지를 한 통 쓰는 것보다 두 배 정도 빠르다고 해 보자. 1990년에 평일 기준 하루에 편지를 열 통 쓰고 받았고 이를 위해 총 두 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 보면, 이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서신 교환에 매일 한 시간만 필요하다. 보내고 받는 메시지 양이 동일하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자유 시간’이 한 시간 생겨나서 다른 일에 쓸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읽고 보내는 메시지가 두 배로 많아진다면 매일 서신 교환에 드는 시간은 이전과 똑같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과거처럼 출생에 의해 미리 결정되지 않고 생애 동안 안정적이지 않으며, 지속적인 경쟁에 의한 협상 과정에 놓여 있다. 그런데 경쟁에서 승패를 결정하고 차별화하는 원칙은 결국 성과다. 그래서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한 가속과 시간 절감은 경쟁 우위를 얻게 해 주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는 데에 그칠 뿐이다. 경쟁의 사회적 논리에 따르면, 경쟁하는 사람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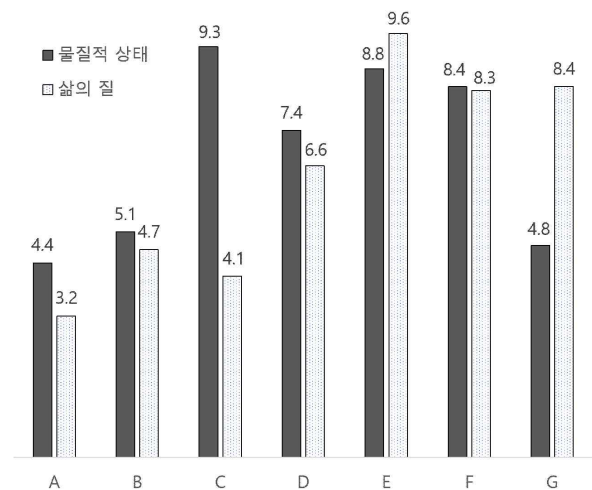
[다]

현대의 효율 개념은 19세기 새로운 과학 분야인 열역학의 실험 과정에서 나타났다.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실험하고 있었던 엔지니어는 열의 유량과 엔트로피를 측정하기 위하여 ‘효율(efficiency)’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효율은 에너지와 노동 및 자본을 최소로 소비하여 최단 시일 내에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산출량을 뜻하게 되었다. 기술유토피아주의자들은 좀 더 효율적인 기계와 효율적인 시간의 이용이 엄청난 물질적 풍요와 자유 시간을 주어 사람들을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하리라 믿었다.

경제적 과정에서 효율이라는 관념을 가장 대중화시킨 사람은 테일러였다. 테일러는 초시계를 이용하여 개별 노동자의 과업을 가장 작은 유형의 확인 가능한 작업 요소로 나누고 그 각각을 측정했다. 이는 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노동자 직무의 개별 구성 요소에서 소요된 평균 시간과 최적 시간을 계산한 테일러는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사소한 성과마저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가에 관해 권고할 수 있었다. 효율의 열풍은 세상을 휩쓸었다. 많은 이가 사람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뀌면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양은 줄어들고 더 많은 부와 자유 시간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효율 사회는 전국의 사무실과 공장, 학교와 시민 단체에서 확립되었다.



[그림 1] A국 1인당 GDP 및 국민 삶의 질 추이
(2014년을 100으로 보고 산출)



[그림 2] 2023년 7개국의 물질적 상태와 삶의 질 비교
(물질적 상태와 삶의 질 모두 10점 만점 기준)

1-1. <가>의 엘리스가 느끼는 당혹스러움을 <나>의 논지를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300±30자)

1-2. <다>의 효율 사회에 대한 믿음의 한계를 [그림 1], [그림 2], <나>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600±60자)

■ 예시 답안

1-1.

앨리스는 자신도 세상이라는 체스 게임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한다. 게임은 곧 경쟁을 뜻하며, 달리기 는 그런 경쟁에 대한 비유다. 하지만 앨리스는 아무리 달려도 결국은 제자리에 있음을 알고 당혹해한다. <나>의 논지에 따르면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시간 부족을 느끼는 까닭은 경쟁 때문이다. 경쟁에 노출된 사람들은 앨리스처럼 힘껏 달려야 겨우 제자리를 지킬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다. 앨리스의 당혹스러움은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도 함께 달리는 경쟁의 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비유라 할 수 있다. (311자)

1-2.

효율은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최소로 하고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기술유토피아주의자들은 효율적인 기계의 사용과 효율적인 시간의 이용이 인류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약속한다고 믿었다. 효율 사회는 그런 믿음의 상징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믿음과는 달랐다.

[그림 1]은 2014년을 기점으로 A국의 1인당 실질 GDP 성장 지수와 국민 삶의 질 지수 사이의 관계를 보여 준다. GDP는 사회의 효율성과 물질적 상태를 보여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시간이 지날수록 두 지표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GDP의 성장만큼 삶의 질이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역시 C국과 G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물질적 상태와 삶의 질 사이의 비례적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효율 사회가 더 좋은 삶을 가져다주리라는 믿음이 현실과 충돌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현실을 경쟁의 사회적 의미로 설명한다. 오늘날 우리는 지속적인 경쟁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수밖에 없으며, 끝없이 일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효율적인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 부족에 시달리며 더 많이 일해야 하는 이유이다. (643자)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앨리스가 느낀 당혹스러움을 설명】 ① 앨리스의 당혹스러움은 빠르게 달렸음에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 때문이다. 【제시문 <나>의 논지】 ② <나>의 논지에 따르면 효율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에 여유가 생기리라는 기대와 달리 현실에서 시간 부족을 느끼는 역설적 현상은 사회적 경쟁 때문이다. 【제시문 <나>의 논지를 통해 앨리스의 당혹스러움 설명】 ③ <나>에 따르면 경쟁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 만약 다른 경쟁자도 나와 똑같은 성과를 낸다면, 나는 제자리에 머무는 셈이다. 내가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해야 한다. ④ 앨리스가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 상황은 이러한 경쟁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1등급 2등급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하고 글의 논리적 완성도와 문장의 완성도가 높은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논리적 완성도나 문장의 완성도 중 하나가 미흡한 경우	2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②, ③, ④를 충족하였으나 글의 완성도가 미흡한 경우	3등급
	②, ③을 충족하였으나 ①, ④가 미흡한 경우	4등급
	①, ③, ④를 충족하고, ②가 미흡한 경우(<나>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5등급
	①, ④를 충족하고, ②와 ③이 미흡한 경우	6등급
	②를 충족하고 ①, ③, ④가 모두 미흡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가 모두 미흡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효율 사회에 대한 믿음의 내용과 그 한계를 <나>를 활용하여 밝히기】 ① 효율 사회에 대한 믿음은 (기술유평아주의자들의 관점처럼) 사회적 효율성이 높아지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더 많은 자유 시간이 주어져 사람들을 더 좋은 삶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다. ② 그러나 <나>가 보여 주듯 더 효율적인 기술이 개발되어도 우리의 삶이 더 나아졌다고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한 사회적 경쟁 상태에서는 기술의 발전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는 계속, 더 많이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자료에 대한 해석】 ③ [그림 1]은 삶의 질 종합지수가 1인당 GDP의 성장만큼 비례해서 커지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도리어 그 간극은 벌어지고 있다. 이는 물질적 풍요를 곧바로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라는 해석은 잘못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④ 실제로 [그림 2]의 국가 간 비교 자료는 물질적 상태와 삶의 질 사이에 비례적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 준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삶의 질은 그만큼 이르지 못하거나 거꾸로 물질적 상태는 풍요롭지 않아도 삶의 질이 높은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의 논지와 그림 자료에 대한 해석을 연결하여 효율 사회에 대한 믿음의 한계 설명하기】 ⑤ [그림 1], [그림 2], <나>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 도달한 효율 사회가 곧바로 더 좋은 삶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비록 효율성의 증가가 우리의 삶을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해 줄 수는 있으나 과도한 경쟁은 우리를 더 지치게 하고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삶으로 이끌 수도 있다. 효율 사회에 대한 믿음은 이런 점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제한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고 글의 논리적 완성도와 문장의 완성도가 높은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고 논리적 완성도나 문장의 완성도 중 하나가 미흡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였으나 글의 완성도가 미흡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였으나 ⑤가 미흡한 경우	4등급
	①, ②, ⑤를 충족하였으나 ③, ④가 미흡한 경우(그림 자료 해석이 미흡한 경우)	5등급
	③, ④, ⑤를 충족하였으나 ①, ②가 미흡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세 항목 이상이 부족하고 글의 완성도가 미흡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미흡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2회차 · 문항 2

[가]

나는 도시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나와 다른 배경을 지닌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다. 열서너 살 무렵, 나는 같은 반 친구 한 명과 깊은 우정을 나눴다. 그는 당시 우리 도시에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에서 근무하던 교수의 아들이었다. 어느 날엔가 음악 선생이 우리에게 연주곡을 들려주고는 무슨 곡인지 맞춰 보라고 말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손을 번쩍 들고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무소르그스키의 <민동산에서의 하룻밤>이요!” 나는 이 광경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나에게 그 수업은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내 가족들에게 이런 부류의 음악은 참을 수 없었고 조롱거리일 뿐이었다. 우리 집에서는 이런 걸 “잘난 척하는 음악”이라고 불렀다. 어쩌다가 그런 음악이 나오는 방송이 라디오에 잡히면 우리 가족은 서둘러 끄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미사에 온 것은 아니잖아.”

파리에서 공부 중인 형과 누나가 있었던 그는 작가나 영화감독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습득한 것이었다. 그는 내게 고다르의 영화나 베케트의 연극에 관해 이야기했고, 나는 나 자신이 매우 무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내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고, 특히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싶다는 갈망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나를 매료시켰고, 나는 그를 닮고자 열망했다. 그리고 나 역시 고다르와 베케트에 관해 말하기 시작했다. 고다르 영화나 베케트 연극을 본 적도 없는데 말이다. 나는 속임수 쓰는 법을 배웠다. 내가 갖고 있지도 않은 지식을 내 것인 양 주장했다. 진실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중요한 것은 내가 전력을 다해 나 자신에게 만들어 주고자 한 외양과 이미지뿐이었다.

그는 잭 케루악*을 숭배했고, 기타 연주를 즐겼으며, 히피 문화에 동질감을 느꼈다. 문화는 줄곧 그의 세계였다. 그와 달리 나는 68년 5월 혁명**과 정치적 저항의 영향을 받았다. 나는 학교 문화와 그것이 요구하는 훈육에 저항했다. 나는 소란스러웠고, 순종적이지 않았다. 자칫했다간,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나를 학교 교육을 완전히 거부하는 방향으로 떠내려가도록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열등한 나 자신을 마주해야 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잔인했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는 자신이 교분을 나누는 사람에게, 마치 그 역시 예전부터 자신과 동일한 실존적·문화적 경험을 해 왔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그렇게 전제함으로써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우정도 역사라는 중력을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공존을 시도하는 두 개의 체화된 사회적 역사였다.

* 잭 케루악(1922~1969):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

** 68년 5월 혁명: 1968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저항운동이자 총파업 투쟁.

[나]

사람들은 누구나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능력을 지닌다고 여긴다. 즉 나이와 신분을 떠나서 똑같이 미적 쾌락을 느끼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공통감각’이다. 공통감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의 법칙처럼 인간 안에 본래 존재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르디외는 이에 반대한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림이나 자연 풍광을 보면서 느끼는 감성은 계급적으로 차이가 난다. 계급적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미적 취향이 학교나 가정에서 익힌 훈련에 따라서 다르게 길들여진다는 점을 가리킨다. 나아가 이러한 미적 취향이 사회적으로 ‘옳음/그름’의 형식으로 작용하도록 강제력을 띠는 것을 의미한다.

부르디외는 미학과 윤리를 분리하지 않는다. 미술 작품이나 음악에 대한 취향은 현실 세계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성향’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예술에 대한 순수주의를 강조하는 미적 성향은 경제적 풍요로움을 즐기고 있는 부르주아적 계급 기반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이것은 안락한 삶을 지향하는 윤리적 성향과 깊숙이 맞물려 있다. 예술과 윤리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미적 취향이 사회적 주체들을 계급적으로 구분하며 이것이 다시 ‘고급 취향/대중 취향’과 같은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미적·윤리적 관계가 ‘지배자/피지배자’의 역학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름다운 것/추한 것’, ‘탁월한 것/천박한 것’의 구별은 사회적 구도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각 주체는 객관적 분류 체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게 되고, 그 자리에서 ‘높음/낮음’의 형식으로 지배 관계가 형성된다.

문화 활동이 권력 형식으로 전이되는 이러한 과정에는 교육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예술 작품을 보고 첫 눈에 반하거나 순식간에 희열을 느낄 수는 없다. 예술을 이해하고 감상할 때는 감정적 융합, 인지 행위, 해독 작업을 거치기 마련이다. 즉 작품의 내재적 논리에 익숙해져야 한다. 명시적이건 암묵적이건 사물을 지각하고 음미하는 도식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해독 능력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다. 이러한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이다. 예술 작품에 대한 안목은 바로 교육의 산물이다. 교육 수준의 정도가 예술에 대한 ‘고급 취향/대중 취향’을 구별하는 계기가 되며, 거꾸로 예술에 대한 취향이 계급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취향은 그림이나 음악과 같은 대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음식에 대한 기호, 가구 취향, 패션 감각 등도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의 실천이 사실은 취향의 논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일상의 문화가 사람들의 쾌락과 감성을 지배하는 것이다. 감성의 형성은 사회적 분류 체계로 작동함으로써 사회적 지배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저항 의식을 억압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다]

예술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주요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매튜 아놀드는 순수예술을 인류의 주요한 정신적 성취로 파악했으며 이를 통해 ‘무정부 상태의 대중’을 ‘천박한 본성’에서 구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역사적으로 예술 교육은 특정 기예를 특정 전문가 집단에게 숙련시키는 예술가 교육 이상이었다. 예술 교육은 공동체적 삶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신적 모델을 제시하여 대중들을 계도하는 ‘시민 교육’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세기 보스턴의 엘리트들은 새로 유입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비영리 예술 단체를 설립하여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을 구별하고 전자의 우월성을 제도화시켜 나갔다. 이때 고급 예술의 대중 문화에 대한 상징적 우위는 전자가 후자의 문제를 교정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정명(定命)을 포함했다.

역사적으로 예술을 통한 시민 교육 기획의 근저에는 예술을 문화의 정수로 파악하는 엘리트적 인식이 깔려 있다. 엘리트가 선도하는 예술 교육 정책은, 고급 예술을 일반 대중에게 보급한다는 ‘문화 민주화’ 정책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전후 서구의 복지국가 체제하에서 진행된 문화 민주화 정책은 아놀드의 예술교육론에 그 뿌리를 두었다. 문화 민주화 정책은 예술을 통해 대중의 저급 문화를 교화하고자 했으며 도시 공동체에서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는 노동자와 이민자들을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계도하고자 했다. 그런데 좋은 취향으로 나쁜 취향을 대체하려는 이 같은 시도는 엘리트적 유산에 속한 문화가 다른 모든 것들에 우선한다는 견해를 드러내었고, 문화와 창의성이 일부 전문적인 예술가들에게만 속한다는 생각을 강화하였다.

2-1. <가>에 나타난 ‘나’의 경험을 <나>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30자)

2-2. <다>에 제시된 ‘문화 민주화’ 정책의 이념과 특징을 요약하고, 이에 대해 <나>를 바탕으로 비판하시오. (600±60자)

■ 예시 답안

2-1.

<가>에서 ‘나’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에게서 받았던 문화 충격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예술에 대하여 자신과는 다른 안목과 식견을 지닌 친구를 보며 ‘나’는 그와 닮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낄 뿐이다. <나>에 근거하면 ‘나’와 친구 사이의 간극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형성된 미적 감성의 계급적 차이이다. 또 ‘나’의 열등감은 ‘좋은 취향/나쁜 취향’이라는 미적 감성이 ‘높음/낮음’의 권력 형식으로 전이되는 작용에 기인한 것이다. 계급적 차이가 쉽게 해소될 수 없음을 느끼며 ‘나’는 이를 ‘두 개의 체화된 역사’라고 명명한다. (320자)

2-2.

<다>에 제시된 문화 민주화 정책은, 순수예술이 인류의 주요한 정신적 성취라는 전제 아래 예술교육을 통해 공동체적 삶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신적 모델을 대중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믿음을 이념적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이념 아래 문화 민주화 정책은 좋은 취향을 길러낼 수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통해 대중의 저급한 문화를 교화하고 도시의 노동자와 이민자를 계도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나>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 민주화 정책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다. 첫째, 문화 민주화 정책은 ‘엘리트와 대중’,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만들고, 이러한 구도 아래 전자가 윤리적으로 옳고 권력적 우위에 놓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제도화하였다. 결국 이를 통해 사회적 지배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저항 의식을 억압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비판할 수 있다. 둘째, 문화 민주화 정책의 바탕에는 문화와 예술의 정수가 순수예술과 고급 예술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계급적 역학 관계에 따른 취향의 사회적 구도에서 대중적 취향이나 대중 예술은 저급한 것이며 대중의 창조적 역량 역시 평가 절하된다. 문화 민주화 정책은 대중을 능동적 주체로 여기기보다 교화의 대상, 피동적 존재로 여긴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651자)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2-1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논제에 대한 파악】 ① 제시문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가>를 분석적으로 읽어야 한다. <가> 제시문을 단순히 요약하거나 <가>와 <나>를 각각 요약하는 것은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제시문 <가>의 상황 파악】 ② <가>의 ‘나’는 도시의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자신과 계급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친구를 만나 문화 충격을 받는다. 성장 과정 내내 엘리트 문화를 경험해 온 친구는 음악, 연극, 영화 및 문학 등에서 ‘나’와는 다른 식견과 감상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제시문 <나>의 논지 파악】 ③ 미적 취향과 예술적 감성의 형성은 계급적 배경과 관련되며, 가정과 학교에서의 훈련을 통해 길들여지는 것이다. 【제시문 <나>의 논지를 통해 <가>를 설명】 ④ ‘나’와 친구 사이의 예술적 식견의 차이는 서로 다른 계급 기반에서 교육받고 성장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⑤ ‘나’가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며 느낀 부러움, 열등감 등의 감정은 취향과 감성이 사회적 주체들을 계급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좋은 취향/나쁜 취향’, ‘탁월한 것/천박한 것’,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아름다운 것/추한 것’이 ‘높음/낮음’의 권력 형식으로 전이되는 작용에서 기인한 것이다. 【기타 가능한 서술】 ⑤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술하는 경우에도 평가할 수 있다. ⑤ ‘나’는 친구와 자신 사이의 미적 감성의 간극이 쉽게 해소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으며, 서로 다른 계급적 기반을 지닌 둘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두 개의 체화된 사회적 역사’라고 명명한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였으나 논리성이 불충분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였으나 ⑤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였으나 ④, ⑤가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였으나 ④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혹은 ①, ③을 충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2-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논제에 대한 파악】 ① 제시문 <다>의 ‘문화 민주화’의 정책의 이념과 특징을 먼저 요약한 후, 이를 제시문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비판하여야 한다. 요약이 없거나 요약한 것에 대한 비판적 서술이 없는 경우는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제시문 <다>에 제시된 ‘문화 민주화’ 정책의 이념과 특징 요약】 ② 문화 민주화 정책은, 순수예술은 인류의 주요한 정신적 성취라는 전제 하에 이러한 예술을 일반 대중에게 교육한다면 대중의 저급한 취향을 계도하고 공동체적 삶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신적 모델을 가르칠 수 있다는 믿음을 이념으로 한다. ③ 이러한 이념 아래 문화 민주화 정책은 좋은 취향을 길러낼 수 있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의 저급한 문화를 교화하고 노동자와 이민자를 계도하고자 한다.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다>를 비판】 ④ 문화 민주화 정책은 ‘순수예술의 탁월성과 대중문화의 저급성’,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전제로 하며 전자를 상징적 우위에 놓는다. 이를 통해 엘리트 문화의 수월성이 윤리적으로 옳고 권력적 우위에 놓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 지배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저항 의식을 억압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⑤ 문화 민주화 정책의 바탕에는 문화와 예술의 정수는 순수예술과 고급 예술이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감성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대중적 취향이나 대중 예술은 평가절하되며 대중의 창조적 역량 역시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예술교육에서 대중을 능동적 주체로 여기기보다 교화의 대상, 피동적 존재로 여긴다는 점에서도 비판할 수 있다. 【기타 가능한 서술】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⑤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술하는 경우에도 평가할 수 있다. ⑤ 문화 민주화 정책은 엘리트적 예술과 엘리트층의 문화만이 우수한 것이고 대중의 문화나 대중 예술은 가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강화한다. 겉으로는 문화를 민주화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문화와 예술의 엘리트 중심주의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였으나 논리성이 불충분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였으나 ⑤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였으나 ④, ⑤가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였으나 ④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혹은 ①, ③을 충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2024학년도 인문계열

1회차 · 문항 1

[가]

<판결 요약> 배달대행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재해를 입은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 원고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음식점 등(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 배달대행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배달원(피고)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배달 업무를 수행함. 대법원은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한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고, 이는 ‘프리랜서’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고 판결함. 따라서 배달원은 배달대행업체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근거> ① 배달원을 포함한 이 사업장 소속 배달원들은 가맹점에서 배달대행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요청을 할 경우 그 요청을 선택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원고로부터 특별한 제재가 없었고, 이 프로그램에는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이 없어 원고가 배달원들의 현재 위치와 배송상황 등을 관제할 수 없었으며, 배송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아니었다. ② 원고는 배달원들의 업무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배달원들은 이 사업장 소속으로 수행하는 배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시간대에 다른 회사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배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 ③ 배달원들은 가맹점으로부터 배달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그 수익을 얻었고, 별도로 원고로부터 고정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④ 원고는 배달원들과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고, 배달원들이 지급받는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배달원들에 대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하지도 않았다.

[나]

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시장 관련법의 근로자 개념은 각 법률의 입법 목적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판례도 각 법령상의 근로자에 대해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근로자 판단의 공통된 핵심 개념은 ‘종속노동’, ‘사용종속관계’,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등이다. 현행 노동법의 규율 대상은 모든 종류의 노동이 아닌 ‘종속노동’이며, 상위 개념인 이 종속노동을 수행하며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는 자를 노동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라고 본다. 또한 사용종속관계에는 인적 종속과 경제적 종속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된다. 즉, 종속노동은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자신의 신체·인격과 분리하여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력 제공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는 것(인적 종속)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누군가에게 노동력을 팔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여 계약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경제적 종속)을 의미한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노무 제공이 부상함에 따라 여러 새로운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근로자의 ‘오(誤)분류’를 둘러싼 법적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예컨대 우버 택시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각국 법원에서 논쟁이 있었으며 아직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노동법이 최초로 정립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종속노동 개념이 처음 착안되었을 당시의 연원과 그 본래적 의미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근대의 노동법이 규정하는 종속노동 개념의 성립 과정을 검토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종속노동은 산업혁명 이후 노동 본질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근대 이행기의 정치적 변화는 ‘신분에서 계약으로(from status to contract)’로 요약되나, 정치적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서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을 통해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상태가 종속노동이라는 이론으로 정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종속노동은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 개념이기도 하다. 둘째, 종속노동에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이라는 요소가 함께 있다면, 종속노동은 인적 종속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대적 노동법을 정립한 진쯔하이머(Sinzheimer)는 노동자가 생존을 위해 타인의 처분 하에 종속되어 일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의 논지에 따르면 이는 현상에 대한 ‘묘사’이지 노동법을 적용받으려면 인적 종속성을 꼭 입증해야 한다는 식의 ‘규범’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은 독해다. 진쯔하이머는 실업자처럼 현재 인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은 자들도 노동법이 상정하는 노동자임을 강조하였고, 또한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직접적으로 감독 받지 않으면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가내노동자’ 역시 노동자라고 보았다. 외견상 비교적 자유로워 보일지라도 경제적 종속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는 종속노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적 종속성을 종속노동 내지 사용종속관계의 중심 요소로 보아 협소하게 적용하는 해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플랫폼 기업은 생산과 소비의 두 시장을 교차시켜 지식과 정보, 미디어,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하였다. 플랫폼이 일단 성립되고 나면 플랫폼은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경쟁자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사라진다.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경쟁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단면시장과 구별된다. 첫째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선 네트워크 효과란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참여자들의 가치가 커져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플랫폼은 네트워크를 소유하는 주체이고 따라서 네트워크가 커져간다는 것은 플랫폼의 가치가 커져감을 의미한다. 그런데 플랫폼 경제에서는 생산과 소비 두 시장의 네트워크가 서로 지원하면서 성장해 가기에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이런 이유로 규모의 경제가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경쟁의 본질이 규모의 경제이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플랫폼 경제의 모든 참여자들은 시작부터 스프린터처럼 달려야 한다. 그 결과 플랫폼 경제에서는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난다. 바로 승자독식의 원칙이다.

이런 식의 플랫폼 경제에서는 시장 참여 주체 간의 호혜적 관계 구축은 애초에 논의였다고 볼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이 네트워크 효과를 선점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은 다양한 노동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은 프리랜서 내지 독립사업자로 취급되고 있으며, 실제로 일반 노동자와 비슷하게 일하더라도 노동법의 규제나 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건당 수수료 등의 임금 체계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은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으면서까지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몫이 지나치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즉, 플랫폼 기업은 경쟁 과정에서 기존의 고용 관계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비껴가며 산업재해 등 위험 비용을 개별 노동자에게 외주화하는 태도를 취하기 쉽다.

<표1> 플랫폼 노동자의 유형별 상위 5개 직종 분포

(단위 %)

	주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여형
배달·배송·운송	82.3	68.5	75.9
가사·청소·돌봄	4.6	5.3	-
전문서비스 (통번역·강사·상담 등)	3.3	14.5	6.2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2.8	5.9	8.5
IT 관련 서비스	2.7	1.2	2.9
미술 등 창작활동	-	-	5.2

* 주업형: 총수입의 50% 이상, 주당 20시간 이상(31.2만 명)

* 부업형: 총수입의 25~50% 미만, 주당 10~20시간 미만(26.1만 명)

* 간헐적참여형: 총수입의 25% 미만, 주당 10시간 미만(8.8만 명)

<표2> 플랫폼 노동자의 유형별 보험 가입 실태

1) 고용보험

(단위 %)

	주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여형
가입	26.9	25.9	46.3
미가입	58.2	48.4	29.1
모름	14.9	25.7	24.6

2) 산재보험

	주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여형
가입	27.7	28.3	43.6
미가입	52.6	43.6	28.1
모름	19.7	28.1	28.4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2021.

1-1. <나>의 밑줄 친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가>의 판결의 <관련 근거>에 대해 설명하시오. (300±30자)**1-2.** <표1>과 <표2>에 나타난 플랫폼 노동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가>~<다>를 통해 설명하시오. (600±60자)

■ 예시 답안

1-1.

<나>는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상 노동자 규정의 핵심개념은 ‘종속노동’이며, 사용자와 노동자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종속노동의 속성으로 인적 종속과 경제적 종속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 판결의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관련근거 ①은 배달원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와 통제를 말하기에 인적 종속 여부, ②는 배달원의 업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것이기에 인적 종속 여부, ③은 건당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는 경제적 종속 여부, ④는 근로계약 여부에 관한 것으로 경제적 종속 여부에 각각 해당한다.

1-2.

<표1>은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배송·운송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아 노동자가 그 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는 플랫폼 노동 참여 정도에 따른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비율을 보여주는데, 주업과 부업 모두 가입률이 낮으며, 주업으로 일하는 종사자의 미가입률이 가장 높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보호의 부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플랫폼 기업의 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기업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몫이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가>는 현행법이 근로자 규정을 협소하게 적용하여 플랫폼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판결하고 있지만, <나>의 종속노동 개념에 따르면 그것은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기에 그것을 현재의 플랫폼 자본주의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해결방향으로는 노동자 규정의 법적 재검토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적절한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위험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의 핵심 개념을 기술】 ① <나>는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상 노동자 규정의 핵심개념은 ‘종속노동’이며, 사용자와 노동자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용종속관계를 맺은 종속노동의 속성으로 인적 종속과 경제적 종속이 있다. 【<가> 판결의 <관련 근거> 설명】 ② 관련근거①은, 배달원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와 통제를 말하기에 인적 종속성 여부, ③ 관련근거②는, 배달원의 업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것이기에 인적 종속성 여부, ④ 관련근거③은 건당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는 경제적 종속성 여부, ⑤ 관련근거④는 근로계약과 임노동 여부에 관한 것으로 사용종속관계 중 경제적 종속성 여부에 해당한다. - <가> 판결문은 이러한 근거로 배달대행종사자를 ‘종속노동’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프리랜서로 판단하고 있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을 충족하고, ②, ③, ④, ⑤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을 충족하고, ②, ③, ④, ⑤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며, 논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이 부족하고, ②, ③, ④, ⑤ 중 두 개가 부족한 경우	5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이 부족하고, ②, ③, ④, ⑤ 중 두 개가 부족하며, 논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이 부족하고, ②, ③, ④, ⑤ 중 세 개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표1>과 <표2>에 대한 설명】 ① <표1>은 플랫폼 노동자의 주업 또는 부업 여부에 따른 상위 5개의 직종 분포를 보여 주는데, 이를 통해 배달·배송·운송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아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가 그 노동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문과의 유추로 배달업 종사자의 위험 노출 가능성을 지적할 수도 있다. ② <표2>는 플랫폼 노동 참여 수준에 따른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비율을 보여주는데, 주업과 부업 모두 가입률이 낮으며, 주업으로 일하는 종사자의 미가입률이 가장 높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형태의 불안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보호의 부족을 알 수 있다. 【플랫폼 노동 상황의 문제점】 -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플랫폼 기업이 네트워크 효과를 선점하기 위한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사업자로 간주하여 고용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③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몫이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 ④ 또한 <가>는 현행법상 노동자 규정을 협소하게 적용하여 플랫폼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판결하고 있지만, <나>의 종속노동 개념에 따르면 그것은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으로 그것을 현재의 플랫폼 자본주의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해결방향】 ⑤ 따라서 해결방향으로는 노동자 규정의 법적 재검토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적정한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위험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회차 · 문항 2

[가]

현은 아내의 주장대로 그 송장의 주머니에서 툇 것 같은, 가슴이 섬뜩한 퇴직금이지만, 그것을 밀천으로 토끼를 기르기로 한 것이다. 뉘네 집에서는 처음 단 두 마리를 사온 것이 일년이 못 돼 오십 평 마당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도록 퍼지었고, 뉘 집에서는 이백 원을 들여 시작했는데, 이태가 못 되어 매월 평균 칠팔십 원 수입이 있다는 것은 현의 아내가 직접 목격하고 와서 하는 말이었다. 곧 광주 가네보 양토부로 제일 기르기 쉽다는 메리켄으로 이십 마리를 주문하였다. 곧 목수를 데려다 토끼장을 짰다. 현은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 풀과 아카시아잎을 뜯어 왔다. 두부 장사에게 비지도 맡기었다. 수분 있는 사료만으로는 병이 나는 법이라 해서 건조 사료도 주문하였다. 사흘 만에 이 작고 귀여운 현의 집 새 식구 이십 명은 천장을 철사로 엮은 께짝에 담기어 한 명도 탈 없이 찾아들었다. 그들은 더위에 할락거리기는 하면서도 그저 께짝 속이 저희 안도(安堵)인 듯, 밖을 쳐다보는 일이 없이 태연히 주둥이들만 오물거리었다. 자연의 한 동물이라기보다 시험관 속에서 된 무슨 화학물 같았다. 아이들과 아내는 즐기어 끄르며 덤비었으나, 현은 뒤에 물러서서 그 작은, 그 귀여운, 그리고 박꽃처럼 희고 여린 동물에게다 오륙 명의 거센 인생의 생계를 계획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확실히 죄스럽고 수치스럽기도 하였다. (...) 토끼는 듣던 바와 같이 빠르게 번식해 나갔다. 스무 마리가 아카시아잎이 단풍들 무렵에 사십여 마리가 되어 북적거린다. 토끼장도 다시 한 오십 마리 치를 늘리려 재목까지 사들이는 때다.

문제가 일어났다. 먹이의 문제다. 풀과 아카시아잎의 저장을 충분히 할 수 없어 비지와 건조 사료에 오히려 믿는 바 컸었는데 두부 장사가 가끔 거른다. 오는 날도 비지를, 소위 실적의 반도 못 가져온다. 건조 사료도 선금과 배달비까지 후히 갖다 맡겼는데도 오지 않는다. 콩이 잘 들어오지 않아 두부 생산이 준 것, 그러니 두부 대신 비지 먹는 사람이 는 것, 그러니 비지는 두부보다도 더 귀해진 셈이다. (...) 현의 아내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처럼 며칠이나 얼굴이 붉어 있었으나 결국 토끼를 기름으로써의 생계는 단념하는 수밖에 없었다. 토끼를 혈값이라도 치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족이면 얼마든지 일시에 처분할 수가 있으나 산것째로는 어디서나 먹이가 문제라 길이 막히었다. 사십여 마리를 일시에 죽이자니 집안이 일대 도살장이 되어야 한다. (...) 더 늘쿠지나 말고 오래는 걸리더라도 산 채로 처분하는 수밖에 없었다. 산 채로 처분하자니 팔리는 날까지는 어떻게 해서나 굶겨 죽이지는 않아야 한다. 부드러운 풀은 벌써 거의 없어진 때다. 부엌에서 나오는 것은 무청뿐이요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클로버뿐이다. (...) 현은 입맛을 짹짹 다시다가, “당신이 가기 싫음 내가 가리다. 오륙이 멀쩡해 가지구 미물이라두 기르던 걸 굶겨 죽여야 옳우?”하는 아내의 위협에 아내가 홀몸도 아닌 때라, 또 다른 곳도 아니요 저희 모교 마당에 가서 토끼밥을 뜯고 앉아 있는 정상이 어찌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게 머릿속에 떠올라, 그만 대팻밥 모자를 집어쓰고 동저고릿바람인 채 고무신을 끌고, 막 학교에서 돌아오는 큰녀석에게까지 다래끼를 하나 둘러메어 가지고 고개를 넘어 M 여전으로 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한철이었다.

현은 어느 책사에 들렀다. 양토법에 관한 책에는 토끼의 도살법까지도 써어 있기 때문이다. (...) 오는 길로, 옷을 갈아입는 길로, 토끼 한 놈을 꺼내었다. 목직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뼈들컹거리고, 눈을 푹망거리고…… 교미기가 지난 놈들이라 새끼 때의 화학물 감(感), 박꽃 같은 이젠 아니요, 농기는커녕 웬만침 서투르게만 붙잡아도 뼈들컹하고 튕겨져 산으로 치달을 것만 같은 ‘짐승’이다. 현은 도로 토끼를 갖다 넣고 만다. 암만 생각하여도 그 목을 졸라 쥐고, 뼈들적거리는 것을 이기느라고 같이 힘을 쓰며 뛰어쓰는 눈을 내려다보고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노릇, 현은 그 목을 졸라 죽이는 법에 자신이 생기지 못한다. 심장이 어드메쯤이라고 그 폭신한 가슴을 더듬어 송곳을 들이박기는, 남의 주사침 맞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으로는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치고, 지금 아내의 뱃속에 들어 있는, 마치 토끼 형상으로 꼬부리고 있을 태아를 위해 이런 짓은 생각만으로도 죄를 받을 것만 같았다.

- 이태준, 〈토끼 이야기〉

[나]

경제적 유인이란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자극을 말한다. 즉 사람들이 생산과 소비활동을 할 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나 제도 등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사람은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을 변화시키는 경제적 유인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어떤 행동의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편익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유인이 주어진다면 그 행동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시장 경제에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은 가격, 임금, 이윤, 보조금, 벌칙금, 과태료 등이다. 경제적 유인은 해당 경제 주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특정 행위를 더 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유인과 불리하게 작용하여 특정 행위를 덜 하도록 하는 부정적 유인으로 나뉜다. 긍정적 유인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편익의 증가를 통해, 부정적 유인은 편익의 감소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은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이 변하면 사람들의 행동도 변한다. 예를 들어 시장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에게 수요량을 줄이도록 하는 부정적 유인으로 작용하고, 생산자에게는 공급량을 늘리도록 하는 긍정적 유인으로 작용한다.

[다]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동물에게도 지능이나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부정한다.

싱어(Singer)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감소해야 한다는 ‘동물복지론’을 주장한다. 그는 동물도 인간처럼 쾌고(快苦) 감수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얼마만큼 행복이나 고통을 산출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리주의에 근거하여 싱어는 어떤 존재가 감각을 지니고 있다면, 그 존재가 느끼는 쾌락이건 고통이건 그들의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리를 제시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누가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지를 보고 더 많은 고통을 느끼는 대상을 우선으로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싱어의 주장이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종(種)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다른 처우를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양자를 동등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인간의 목적을 위하여 동물을 계속 이용할 수는 있지만 현재 동물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건(Regan)은 의무론적 관점에서 동물도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동물권리론’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각과 감정을 지닌 존재이고,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삶의 주체이다. 삶의 주체로서 동물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다른 것과 맞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동물은 다른 어떤 목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 그에 따르면 정상적인 포유류는 삶의 주체이고,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권리란 삶의 주체인 모든 존재에게 귀속되는 도덕적 권리를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이건, 인간 아닌 동물이건 그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인 것이다. 이처럼 내재적 가치가 종을 초월하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도덕적 권리가 되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을 도덕적으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레건은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동물은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소유하기 때문에, 인간의 관행적인 동물 이용은 단순히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1. <가>에 나타난 ‘현’의 토끼 사육 결심과 포기를 <나>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30자)

2-2. <다>에 제시된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을 대비하고, 두 이론을 각각 활용하여 <가>에서 ‘현’의 토끼 사육 행위를 평가하시오. (600±60자)

■ 예시 답안

2-1.

<가>에서 ‘현’이 토끼 사육을 결심한 것은 긍정적인 경제적 유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퇴직금이 작은 한정된 상황에서 퇴직금을 토끼 사육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토끼의 번식 능력이 연 500%에 가까운 편익(투자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아내가 직접 목격한 정보를 근거로 내린 합리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반면 ‘현’이 토끼 사육을 포기한 것은 부정적인 경제적 유인의 작용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토끼 사육을 지속할 경우, 토끼 개체 수 증가 및 먹이가 되는 비지와 사료의 공급 부족, 그로 인한 사육 비용의 급등으로 인해 투자 수익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결정이기 때문이다.

2-2.

<다>의 ‘동물 복지론’과 ‘동물권리론’은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고,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며,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차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동물의 도덕적 지위의 근거를 전자가 쾌고 감수성에서 찾는 데 반해 후자는 삶의 주체로서 동물의 내재적 가치에서 찾겠다는 점,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동물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전자는 인정하지만, 후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차이점을 보여 준다.

<가>는 생계를 위해 토끼 사육을 시작했지만 먹이 문제로 사육을 포기하고 토끼를 도살하고자 하지만 단념하는 ‘현’의 행동이 서술되고 있다. ‘현’의 이런 행동은 동물복지론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토끼에게 안락한 환경 및 먹이를 충분히 제공했다는 점, 개체 수 증가하자 토끼장을 넓히고, 직접 토끼풀을 구하고자 노력한 ‘현’의 행동은 토끼의 행복을 증가하고 고통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동물권리론의 입장에서 ‘현’의 행동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의 토끼 사육 행위 자체가 생계 목적을 위해 토끼를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토끼의 내재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내 뱃속의 ‘태아’를 떠올려 토끼 도살을 단념한 것은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한 행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토끼 사육 결심과 이에 대한 경제적 유인의 해석】 ① <가>에서 현의 토끼 사육 결심은 퇴직금을 투자할 경우 토끼 번식력이 좋아 연 500% 가까운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아내가 전한 객관적 정보에 근거한다. ② 이는 <나>에 근거할 때, ‘사육 비용이 적다’는 조건은 고정된 상태에서 높은 편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경제적 유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토끼 사육 포기와 이에 대한 경제적 유인의 해석】 ③ <가>에서 현의 토끼 사육 포기는 토끼 개체 수의 증가와 토끼 먹이가 되는 비지와 사료가 귀해졌기 때문이다. ④ 이는 <나>에 근거할 때, ‘사육 비용이 급등’하자 그로 인해 순편익, 즉 투자 수익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경제적 유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논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였으나 어느 하나가 부족한 경우	3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②, ③, ④을 충족하였으나 어느 하나가 충분하지 못하고 논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을 충족하였으나 두 개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을 충족하였으나 두 개가 충분하지 못하고 논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을 충족하였으나 세 개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의 대비】 ① 공통점 : 고통을 느낀다. 인간처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차이가 없고, 종차별주의 혹은 인간중심주의를 부정한다. ② 차이점 : 동물복지론은 꽤고 감수성에서, 동물권리론은 동물의 내재적 가치에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 근거를 찾는다. 동물복지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동물의 이용을 인정하는 반면 동물권리론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동물복지론의 시각에서 ‘현’의 사육 행위 평가】 ③ 평가의 기준이 제시-토끼에게 고통 혹은 행복을 초래할 가능성 *단 (앞의 ①, ②의 기술 과정에서 제시된 경우 기술한 것으로 간주함) ④ ‘현’의 행위 긍정적 평가 : 사육환경, 먹이 공급이 토끼의 행복/고통 초래의 가능성 - 충분한 먹이 급여하고 안락한 환경 제공이 번식을 가능하게 함(토끼의 행복 증대) - 토끼 개체 수 증가, 먹이 문제가 발생->토끼장 확장, 현이 직접 먹이 채취(굴김으로써 생길 수 있는 토끼의 고통 증가를 방지) - 따라서, 생계 목적에서 토끼를 이용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아래의 부정적 평가도 가능하므로 고려해야 하지만 부차적임> - 토끼 도살 포기는 먹이를 충분히 주지 못해 토끼의 고통이 증가할 수 있다. - 생계 목적의 사육 행위 자체가 극단적 고통을 초래할 도살을 전제로 했다는 점. 【동물권리론의 시각에서 ‘현’의 사육 행위 평가】 ⑤ 평가의 기준 제시 -토끼는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님. 따라서 인간의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토끼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음 *단 (앞의 ①, ②의 기술 과정에서 제시된 경우 기술한 것으로 간주함) ⑥ ‘현’의 행위 부정적 평가 : 좋은 사육환경과 먹이를 공급하더라도 애초에 생계를 목적으로 토끼를 이용한 ‘현’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 *<아래의 긍정적 평가의 근거도 논리적으로 서술할 경우도 고려해야 함> ◎ 현의 토끼에 대한 인식 변화 : 가축에서 자연 상태의 ‘짐승’으로 / 현의 도살 포기가 ‘태아’에 내재된 생명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계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은 ‘동물권리론’의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②를 충족하였으나 ③, ④, ⑤, ⑥이 불충분하고 논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을 충족하고 ②, ③, ④, ⑤, ⑥이 부족하면서 논리성 및 정서법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2회차 · 문항 1

[가]

코렐(Correll) 등 4명의 연구자는 간단한 비디오 게임을 이용한 세 차례의 실험을 통해 총이나 다른 물건을 들고 있는 흑인이나 백인 표적이 복잡한 배경과 함께 등장할 때, 실험 참가자들이 그 표적에 총을 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표적의 인종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실험 의도가 실험 결과에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이 각 참여자의 반응에 대한 민첩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와 2차 실험에는 백인만이 참여했고 3차 실험에서는 백인과 흑인이 참여했다.

각 실험에 앞서 참가자들은 게임에 등장하는 표적이 무장하고 있다면 사격하고, 무장하지 않고 있다면 사격하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어 참가자들은 실험 참여에 앞서 흑인에 대한 개인적 고정관념과 문화적 고정관념의 수준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작성한 후, 본 실험에 들어갔다.

1차 실험 결과, 참가자들은 무장한 백인 표적보다는 무장한 흑인 표적에 총을 더 빨리 쏘았으며, 비무장 흑인 표적보다는 비무장 백인 표적일 때 총을 쏘지 않겠다는 결정을 더 빨리 내렸다. 2차 실험에서는 게임 응답 제한 시간을 0.85초에서 0.63초로 조정해 참가자들이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오류율을 높이도록 했다. 실험 결과, 참가자들은 무장한 흑인이 표적일 때보다 무장한 백인이 표적일 때 사격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은 비무장 백인 표적보다 비무장 흑인 표적이 등장할 때 실수로 더 자주 총을 쏘았다. 흑인과 백인이 모두 참가한 3차 실험에서도 1차와 2차 실험과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나타났다. 세 차례의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무장 표적과 비무장 표적을 구별하는 능력은 표적의 인종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백인보다는 흑인 표적에 대해 총을 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즉, 흑인 표적에 대해서는 총을 쏘기 전에 그가 실제로 총을 들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덜 필요했다.

이것은 ‘슈터 편견(shooter bias)’을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 문화에 존재하는 흑인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을 강하게 믿는 참가자들에게서 이러한 슈터 편견이 더욱 두드러졌다. 반면, 흑인에 대한 개인적 고정관념 수준이 높은 참가자들과 낮은 참가자들 간에는 슈터 편견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

이중처리이론(dual process theory)은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에 직관적 양식(associative mode)과 숙고적 양식(reflective mode)이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두 양식은 서로 다른 기억 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 직관적 양식이 오랜 시간에 걸쳐 경험과 학습을 통해 체득한 지식을 토대로 한다면, 숙고적 양식은 규칙을 기반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직관적 양식은 투입되는 정보를 병렬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며, 노력을 거의 또는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숙고적 양식은 직렬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며 복잡한 계산을 비롯해 노력이 필요한 정신 활동으로 흔히 주관적 행위, 선택, 집중과 관련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정보는 직관적 양식을 통해 처리된다. 숙고적 양식은 직관적 양식에 투입되는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직관적 양식에 의해 어떤 관련 반응이 생성되지 않으면, 숙고적 양식이 작동해 이후의 판단과 행위를 계산한다. 이때 숙고적 양식은 그 반응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반응으로 조정한다. 어떤 반응이 타당한 추론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면 그러한 반응을 차단하기도 한다. 직관적 양식은 저장된 기억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상과 관련한 정보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성격 묘사를 보고 특정 직업의 전형적인 모습과 유사한지를 알아내는 기술은 언어와 문화를 광범위하게 알아야 하는데 우리 대부분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지식을 기억에 저장해 두었다가 무의식적으로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다. 인지적 편안함을 느끼는 대신 편향에 사로잡혀 무엇을 믿거나 확신하는 오류 가능성도 커진다. 이에 반해 같은 상황에서 숙고적 양식에 의한 정보처리는 그 정보의 사실이나 타당성을 우선한다. 판단의 오류가 줄어드는 대신 인지적 부담이 커진다.

[다]

미디어는 소수인종에 대해 일부 사실이나 이미지 등을 더 중요하게 부각하거나 아예 존재를 부각하지 않는 등의 여러 방식으로 시청자의 지각, 사고방식, 행동양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미국 사회의 경우 이러한 소수인종 재현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하고 있다.

예컨대 신문이나 방송은 물론 소셜미디어에서는 인종적으로 코드화된 설명용 쉼표(explanatory comma)를 자주 사용한다. 특정한 표현이 독자들에게 낯설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쉼표를 사용해 설명을 삽입하는 것이다. 이 쉼표에는 수용자에게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포함되는데 백인들의 것 또는 백인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에는 이런 설명이 들어가지 않지만 다른 인종과 관련한 것에는 자주 붙는다. 설명형 쉼표는 미디어의 소수인종에 대한 정형화(prototyping) 문제를 상기시킨다. 미디어는 정형화를 통해 소수인종에 대한 이미지를 생산하고 이를 평범하며 일상적인 것으로 만든다. 뉴스 미디어는 신속하게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형화를 더욱 필요로 한다. 드라마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정형화된 소수인종을 이야깃거리로 자주 활용한다. 시청자와 광고주를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 수익성을 증대하고 사업가들과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이용된다.

그러나 미디어에 등장하는 흑인에 대한 정형화와 흑인 외 소수인종에 대한 정형화는 구별되어야 한다. 미디어의 문화적 재현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며 혹은 지워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상대적 비가시성(relative invisibility)이 특정 소수인종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인종에 대한 정형화를 통해 집단적인 문화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인종이 성별이나 국적 등 다른 문제와 함께 재현될 때 상대적 비가시성 문제는 더 두드러진다. 상대적 비가시성의 대상이 되는 소수인종은 미디어에서 자신들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또 다른 문화적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위축된다. 동시에 상대적 비가시성으로 인해 소수인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해진다.

<표1> 살인 사건 피해자 비율

인종	실제 피해자(a)	TV뉴스 속 피해자(b)	차이 (b-a)
흑인	28%	23%	-5%p
백인	13%	43%	+30%p
라틴계	54%	19%	-35%p
⋮	⋮	⋮	⋮
전체	100%	100%	

<표2> 모든 사건 가해자 비율

인종	실제 가해자(a)	TV뉴스 속 가해자(b)	차이 (b-a)
흑인	21%	36%	+15%p
백인	27%	25%	-2%p
라틴계	47%	23%	-24%p
⋮	⋮	⋮	⋮
전체	100%	100%	

* <표1>과 <표2>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방송된 범죄 관련 TV뉴스를 무작위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한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종에 따른 비율이다. <표1>과 <표2>에 나타난 실제 피해자와 실제 가해자 비율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범죄통계자료(Criminal Justice Profile)에 근거하였다.

1-1. <가>의 ‘슈터 편견’을 설명하고, <나>를 활용해 이 현상을 기술하시오. (300±30자)

1-2. <표1>, <표2>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와 <다>를 토대로 해석하시오. (600±60자)

■ 예시 답안

1-1.

<가>의 슈터 편견은 모의 사격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표적에 대한 사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표적의 인종에 따라 영향을 받는 현상이다. 백인과 흑인 참가자 모두 슈터 편견을 드러냈고, 흑인에 대한 개인적 편견보다는 흑인은 폭력적 존재라는 문화적 고정관념이 강한 참가자에게서 슈터 편견이 더 두드러졌다. <나>에 따르면, 슈터 편견은 규칙 기반의 인지적 정보처리를 의미하는 숙고적 양식이 아니라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는 직관적 양식의 작용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모호한 상황에서 위험한 표적을 마주한 참가자들의 슈터 편견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표적에 사격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1-2.

<표1>에 따르면 백인은 공식 범죄통계에 나타난 살인사건 피해자 비율이 가장 낮지만, TV뉴스에서는 가장 큰 피해자 집단으로 묘사된다. <표2>에서 흑인은 실제 사건 가해자 비율이 가장 낮지만, TV뉴스에서는 가장 큰 가해자 집단으로 등장한다. 한편, <표1>과 <표2>에서 라틴계는 실제 살인사건 피해자와 모든 사건 가해자 비율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이들이 TV뉴스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로 다뤄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 TV뉴스에서 백인의 피해자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가>에 나타난 슈터 편견 실험 결과가 시사하듯이 미디어에서 백인은 흑인의 공격성에 의한 피해자이자 상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긍정적 존재로 정형화된 결과다. 흑인의 가해자성은 미국 사회에 이들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이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각종 미디어에서 설명적 썰표나 뉴스 및 오락 콘텐츠의 이야기거리를 위한 소재로 이러한 고정관념이 정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틴계의 상황은 소수인종에 대한 미디어의 문화적 재현과정에서 소외, 배제, 삭제라는 상대적 비가시성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흑인의 경우 미디어를 통한 정형화로 인해 부정적 고정관념이 고착되고 있다면, 라틴계는 정형화보다는 사회적 재현에서 보이지 않는 범주로 주변화되고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시문 <가>의 슈터 편견에 대한 설명】 ① 슈터 편견은 참가자들이 표적의 인종에 따라 표적에 대한 사격 여부 결정에 영향을 받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비디오 게임을 활용한 실험 연구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 ② 슈터 편견은 백인과 흑인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③ 슈터 편견은 흑인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이 강한 경우에 더 두드러진다. 그러나 개인적 고정관념 수준과는 무관하다. 【제시문 <나>에서 직관적 모드 적용】 ④ 신속한 판단(결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슈터 편견의 활성화는 숙고적 양식이 아니라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는 직관적 양식의 작용으로 볼 수 있음(숙고적 양식을 언급하지 않아도 무방함) ⑤ 모호한 상황(혹은 복잡한 배경)에서 충을 가진 위험한 표적을 (갑자기) 마주한 참가자들의 슈터 편견이 자동으로 활성화해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표적에 더 사격하는 오류가 발생함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했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⑤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했으나 ⑤가 없는 경우	4등급
	①, ②, ④를 충족하고, ③, ⑤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④를 충족하고, ③, ⑤가 부족하며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 ⑤가 없는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표1>과 <표2>의 내용에 대한 분석】 • 통계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함 ① <표1>에서 공식 범죄통계에 나타난 백인의 살인사건 피해자 비율이 가장 낮지만, TV 뉴스에서는 가장 큰 피해자 집단으로 묘사됨. <표2>에서 흑인은 실제 사건 가해자 비율이 가장 낮지만, TV뉴스에서는 가장 큰 가해자 집단으로 등장함 ② <표1>과 <표2>에서 라틴계는 실제 살인사건 피해자와 모든 사건 가해자 비율 모두 가장 높지만, TV뉴스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로 다뤄지는 경우가 매우 적음 【제시문 <가>와 <다>의 논지 파악과 적용】 • <표1>과 <표2>의 결과를 <가>의 슈터 편견 및 <다>의 설명적 쉼표, 정형화, 상대적 비가시성 개념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 【제시문 <가>의 핵심】 ③ 백인의 피해자성 - 미디어에서 백인은 흑인의 공격성에 의한 피해자이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긍정적 존재로 정형화됨 【제시문 <다>의 핵심】 ④ 흑인의 가해자성을 설명적 쉼표와 미디어의 부정적 고정관념의 정형화로 설명 - <가>의 슈터 편견 연구처럼 흑인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이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각종 미디어에서 설명적 쉼표나 뉴스 및 오락의 소재로 고정관념이 정형화됨 ⑤ 라틴계에 대한 상대적 비가시성 - 소수인종에 대한 미디어의 문화적 재현과정에서 소외, 배제, 삭제라는 상대적 비가시성이 작용함 ⑥ 흑인과 라틴계의 미디어 재현에 대한 차이 강조 - 흑인과는 달리 라틴계는 정형화보다는 미디어 재현에서 보이지 않는 주변부성을 띠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 ⑥을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을 모두 충족했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③, ④, ⑤를 충족하고, ②, ⑥이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③, ④, ⑤를 충족하고, ②, ⑥이 부족하며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③, ④, ⑤를 충족하고, ②와 ⑥이 없는 경우	5등급
	③, ④를 충족하고, ①, ②, ⑤, ⑥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③, ④를 충족하고, ①, ②, ⑤, ⑥이 없는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이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2회차 · 문항 2

[가]

주나라 목왕이 서쪽으로 민정을 살피는 수렵을 나갔을 때에 곤륜산 경계를 넘어 태양이 잠긴다고 하는 엄산까지 가려다가 도달하지 못한 채 왕도로 되돌아오는데 아직 중국 본토에 미치지 못했을 적의 일이다. 도중에 무엇이든 잘 만들 수 있다는 연사(偃師)라는 기술자가 있어서 앞으로 나오라고 불러 왕이 물었다.

“너는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느냐?”

연사가 말하였다.

“신은 오직 명령하시는 바대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이미 만들기를 끝낸 것도 있사오니 원컨대 왕께서 먼저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왕이 말했다.

“내일 가지고 오너라. 같이 한번 보자꾸나.”

다음 날에 연사가 왕을 알현하러 왔으므로 왕이 가까이 오라해서 말하였다.

“너와 함께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연사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신이 만든 인형이운데 연기(演技)를 잘합니다.”

목왕이 놀라서 바라보자니, 앞으로 내딛고 걸으며 아래로 몸을 굽히고 머리를 들고 우러러보는 동작이 정말 사람하고 꼭 같았다. 연사가 그 턱을 건드려주니 곧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음률과 들어맞고, 그 손을 추켜들면 곧 춤을 추는 것이 절도에 호응되어 천변만화하되 뜻하는 바와 들어맞았다.

총애하는 미희(美姬)와 주위에 따르는 여러 시종들을 데리고 같이 동작하는 것을 관람하였다. 그러한 연기가 끝나갈 무렵 그 인형은 자기 눈을 껌벅거리더니 왕을 좌우에서 모시고 있던 시종을 불러내는 것이었다. 왕이 오싹하여 그 자리에서 인형을 베어 죽이려 하였고 연사는 몹시 두려워 곧바로 그 인형을 해부하여 흩어놓고 왕한테 보여주었다. 모두 가죽과 나무에 아교와 옷칠을 입히고 희고 검고 붉고 푸른색의 단청을 칠한 것들을 모아 붙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왕이 그 재료들을 자세히 헤아려보니 안쪽에는 심장, 간, 쓸개, 폐 등이요, 밖에는 근육, 뼈마디, 사지, 살, 가죽, 터럭, 치아 등이 있었는데 다 가짜로 만들어진 물건이었다. 다시 해체된 조각을 모아 합쳐놓으니 처음의 상태와 같아졌는데 왕이 시험 삼아 심장을 떼어놓으면 입이 말을 못하고, 쓸개를 떼어놓으면 다리로 걷지를 못하였다. 목왕은 기뻐하며 말하였다.

“사람의 기교라 해도 이만하면 가히 조물주와 더불어 동등한 경지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명을 내려서 왕의 예비 마차에 연사와 그 인형을 태우고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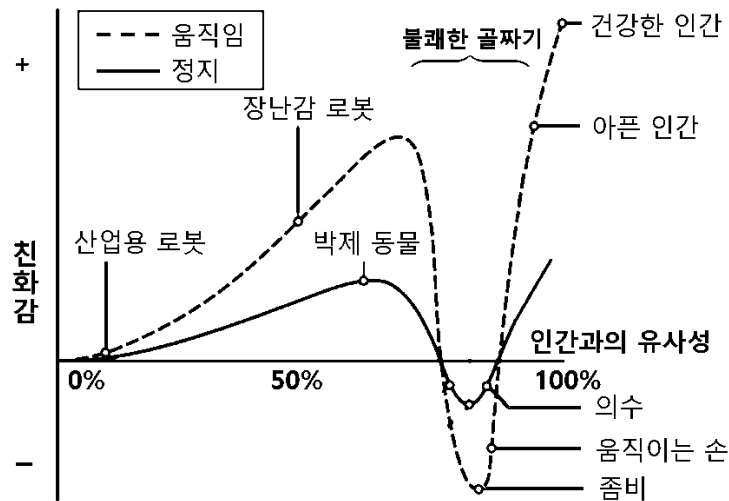
[나]

로봇공학자 모리 박사가 펴친 ‘불쾌한 골짜기’ 이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건강한 인간을 인간과의 유사성 100%로 두고, 그에 대해 느끼는 인간의 친화감을 100%로 설정한다. 반대편에는 인간의 외형과는 명확히 다른 산업용 로봇을 놓는데 유사성과 친화감 모두 매우 낮다.

그것을 기준으로 할 때 장난감 로봇처럼 인간의 외형과 움직임을 모방했지만 인간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기계 장치에는 친화감이 높아진다. 하지만 닮음의 수준이 크게 상승해서 외형이 인간의 모습에 훨씬 근접했을 때, 그리고 그것에 인간을 방불케 하는 움직임이 추가될 때, 가령 ‘움직이는 손(myoelectric hand)’과 같은 것에 이르면 친화력 수치는 급격히 떨어진다. 인간에 성큼 다가선 이질적 존재로 인해 으스스하고 불안한 지각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모리 박사는 이러한 내용을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했다.

친화감 그래프의 선은 첫 정점까지는 인간과의 외형적 유사성에 비례해서 꾸준히 올라가지만 인공 장치에 인간을 닮은 움직임이 가미되면 골짜기 아래로 뚝 떨어진다.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외형의 유사성에 가려져 있던 이질감이 불현듯 지각되기 때문이다. 불쾌한 골짜기는 그 그래프의 낙차를 반영한 개념이다. 가령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에 비례해서 속도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이지만, 불쾌한 골짜기는 로봇

의 인간과의 유사성과 지각자의 친화 관계가 정점을 기점으로 반비례해서 지각자가 불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모리 박사의 이론이 지닌 특이성을 짚고 가기로 하자. 첫째, 그의 고찰은 로봇공학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지만 체계적인 실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설이다. 즉, 사람들의 일상 경험에 기대어 논리를 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검토 가능한 인문학적 사례는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검토 및 실증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둘째, 모리 박사가 인간과 기계 장치 사이의 안전한 거리에 주목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는 논문의 결론에서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지 알기 위해 반드시 불쾌한 골짜기에 관한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로봇 등 인공 장치들은 그래프의 첫 정점에서 멈춘 디자인을 추구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렸다. 가령 안경은 인간의 눈알을 닮지 않았기에 매력적인 디자인의 새로운 눈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

기억해 달라. 내가 기록하는 건 광인(狂人)의 망상이 아니다. 저 하늘에 태양이 빛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확실히 단언하는 사건 역시 실제로 일어났다. 무슨 기적이었는지 모르지만 발견의 단계는 명확하고 개연성이 있었다. 밤낮으로 지독한 중노동과 피로로 점철된 나날을 보내던 나는 드디어 개체 발생과 생명의 원인을 찾아냈다. 아니, 그보다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생명 없는 육신에 숨을 불어넣겠다는 열망으로 거의 2년 가까운 세월을 온전히 바쳤다. 시체안치소에서 유골을 수집하며, 해부실에서 상당량의 재료를 조달받았다. 사지는 비율을 맞추어 제작하였고, 생김생김 역시 아름다운 것으로 선택했다. 외형이 완성되어 갈수록 녀석에게서 생의 동행자 같은 호감이 깊어갔다.

하지만 다 이루던 순간, 아름다웠던 꿈은 사라지고 숨 막히는 공포와 혐오만이 내 심장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내가 창조해낸 괴물을 차마 견디지 못하고 실험실에서 뛰쳐나와 오랫동안 침실을 서성였지만, 도저히 마음을 진정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마침내 최초의 격량이 지나가고 극도의 피로가 찾아왔다. 그래서 옷을 다 걸친 채로 침대에 쓰러졌다.

실험실에서 그가 깨어나던 순간이 또렷이 떠오른다. 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 무시무시함을 견딜 수 없었으리라. 미라도 그 괴물처럼 두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완의 상태에서 녀석을 찬찬히 뜯어본 적은 있다.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모습이었으나 평온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근육과 관절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느낌은 사라지고 단테조차 상상 못했을 괴물로 느껴졌다. 움직임이 그간 깨닫지 못했던 그의 실체를 내 눈앞에 획 끌어낸 것이리라. 식은땀이 이마를 덮었고, 이가 딱딱 부딪고 팔다리는 경련이 났다. (...)

희미한 노란색 달빛이 억지로 창문 셔터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순간, 눈앞에 그 괴물이 보였다. 내가 창조해낸 괴물이. 그는 침대 커튼을 들켰다. 그 눈은, 꿈쩍도 않고 나만 바라보고 있었다.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려하자 뺨이 주름졌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한 손이 뻗쳐 나왔는데 아무래도 나를 붙잡으려 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뿌리치고 층계를 황급히 달려 내려갔다. 그리고 집에 딸

린 안뜰에 몸을 숨기고, 거기서 끔찍한 괴로움에 밤새도록 서성거리며, 귀를 종긋 세우고 무슨 소리가 날 때 마다 내가 그토록 참담하게 생명을 불어넣은 괴물이 다가올까 두려움에 떨었다.

-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

2-1. <가>와 <나>에 나타난 불쾌감의 공통점을 쓰고, 그 극복 방식의 변별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300±30자)

2-2. <다>에 나타난 ‘나’의 행위 및 심리적 변화를 <나>의 불쾌한 골짜기 이론으로 설명하시오. (600±60자)

■ 예시 답안

2-1.

<가>와 <나>는 모두 인간을 닮은 인공물이 인간의 영역에 접어들 때에 인간의 마음속에 생기는 불쾌감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가>의 인형은 왕의 권력에 접근함으로써 왕의 불쾌감을 자아냈고, <나>의 ‘움직이는 손’과 같은 인공물은 인간과의 유사성으로 인간의 영역에 접근함으로써 불쾌감을 자아냈다. 하지만 이 둘의 극복 방식은 변별된다. <가>에서는 인형의 행동을 언제든지 멈추게 할 수 있는 ‘통제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극복했고, <나>에서는 인간의 외형과는 다른, 즉 인간의 모습과 ‘변별되는 디자인’을 추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2.

<나>의 불쾌한 골짜기 이론은 인간을 닮은 인공물이 인간과 유사해질 때 생기는 심리 변화에 대한 것이다. 인간은 처음에는 인간과 닮은 것에 친밀감을 느끼나, 그것이 인간 외형을 점차 닮아가고 여기에 움직임까지 가미되면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유는 움직임이 외형의 이질감을 자각시켰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의 나의 행위 및 심리적 변화는 불쾌한 골짜기 이론에 대응된다. 먼저 이 둘은 인간이 인간을 닮은 인공물을 만드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들이다. <나>의 인공물은 <다>에서는 괴물로 나타난다. 다음 <나>의 초기 단계의 친밀감은 <다>의 초기 괴물과의 친밀감으로 나타난다. <나>에 따르면 인간의 외형을 닮아갈 때 친밀감도 높아지는데 <다>도 괴물의 외양이 완성될수록 친밀감이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인간과의 유사성이 정점을 지나면 급격한 불쾌감의 골짜기로 빠진다고 보는데 <다> 또한 이 현상이 나타난다. <나>에 따르면 급격한 불쾌감을 유발하는 요인은 ‘움직임’인데 이 움직임이 오히려 외형의 이질감을 자각시키면서 불쾌감이 생겨난다고 본다. <다>에서 움직이지 않던 괴물을 평온하게 느끼던 ‘나’가, 그의 근육과 관절이 살아 움직이자 불현듯 그 실체를 느끼고 두려움에 빠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단계에 해당한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2-1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불쾌감의 공통점】 ① ‘인간이 만든 인간을 닮은 존재(인간을 닮은 인공물)’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함. ② <가>와 <나>를 요약하면서 ‘인간의 영역에 접근(다가섬)’이란 내용이 들어가야 함. 【극복 방식의 변별점】 ③ <가>는 ‘제어 가능성’ 또는 ‘통제 가능성’ 또는 ‘원리의 이해(알)’과 같은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④ <나>는 ‘디자인의 변별’ 또는 ‘다르게 생긴 것’ 또는 ‘인간 외형과의 거리감’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함.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를 충족하는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중 3개를 충족하는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 중 3개를 충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중 2개를 충족하는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중 2개를 충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중 1개 미만을 충족하는 경우	7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②, ③, ④ 중 1개 미만을 충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2-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불쾌한 골짜기의 이해】 ① 인간을 닮은 인공물을 대하는 초기 감정은 친밀함, 후기 감정은 불쾌감(오싹함, 으스스함, 두려움 등도 가능)을 이해함. ② 불쾌한 골짜기로 떨어지는 이유가 ‘인간을 닮아 있는 상황 + 움직임’이고, ‘움직임이 생길 때 그간 지각하지 못했던 이질감이 갑자기 지각되는 현상’에 대해 지적해야 함. 【나의 행동과 심리적 변화의 이해】 ③ <나>의 ‘인공물을 만드는 행위’가 <다>의 ‘괴물을 만드는 행위’에 대응함을 알고 있어야 함. ④ <나>의 초기에 보이는 친근감의 상승이 <다>의 괴물을 대하는 심리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해야 함. ⑤ <나>의 불쾌한 골짜기에 떨어지는 순간이 <다>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해야 함. 특히 ‘근육과 관절이 움직이는 장면’을 언급하고 이 움직임으로 인해 갑자기 괴물을 이질적인 존재로 자각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는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4개를 충족하는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4개를 충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3개를 충족하는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3개를 충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3개 미만을 충족하는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3개 미만을 충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AI 논술 자동 첨삭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용 안내

무료 체험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개인 플랜	월 9,900원
교사 플랜	월 29,900원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